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며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의 연령  
층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시대 흐름에  
맞춰 정보취약계층이 정보격차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  
을 받지 않도록 맞춤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달,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도서  
관 문화를 만나봅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은 누리집([www.nl.go.kr](http://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데이지(DAISY,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vol.  
**312**  
2023. 05

# 오늘의 도서관



오늘의 도서관

vol. 312

2023. 05

국립중앙도서관



# 오늘의 도서관

vol.

312

2023. 05



표지 일러스트

일러스트레이터 JINZAKA

책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어 줍니다. 성별과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책으로 소통하며 쌓은 정서적 유대감은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늘의 도서관> 5월호에서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도서관 문화를 만나봅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 제33권 제4호 통권 312호

발행일 2023년 4월 28일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167-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김성훈, 손호림, 이은경, 한숙희, 배명희

편집 이정화 todayslibrary@korea.kr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6331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

제호 강병인 디자인·제작 부문디자인

외부 필자에 의해 제공된 콘텐츠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열다



## 04 오늘의 칼럼

누구나 노인이 된다.  
도서관에서도

## 06 오늘 나의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사랑방이 될 도서관

## 10 일상을 펼치다

실버 세대가  
도서관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

도서관을 만나다



## 14 이달의 전시

깊은 사색으로의 초대  
2023년 고문헌 기증전  
'기억과 나눔'

## 18 문헌의 가치

조선 왕실의  
《안태의궤(安胎儀軌)》

## 22 꿈을 이루는 도서관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 쉬는 도서관  
'강남구립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

## 26 도서관 여행자

바로크 양식의 수도원과  
군용 막사에서  
영혼이 있는 도서관으로  
'벨기에 프레디케렌 도서관'

## 30 도서관 트렌드

미래를 꿈꾸게 하는 도서관  
'학교도서관'

공감을 펼치다



## 34 북데이터

한눈에 보는 뉴실버 세대  
독서 트렌드  
60대 이상 인기대출도서  
분석 결과

## 36 오늘의 만남

알수록 깊이 있는 미술 이야기  
미술사학자 양정무

## 40 K-인문학

'나빌레라'  
무거운 삶과 가벼운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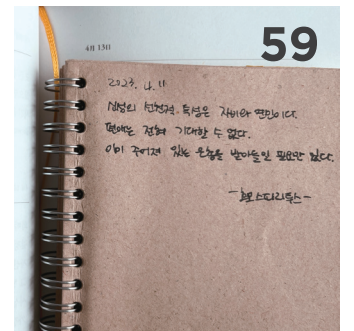
## 44 고전 드라마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  
헤르만 헤세 《데미안》

## 48 오감독서

음악에 담긴 기억으로  
'나'라는 소우주를 탐색하다  
무라카미 하루키 《일인칭 단수》

함께 나누다



##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 58 내 마음의 문장들

2023년 네 번째 필사  
김영랑 <오월>

## 59 오늘의 사진관

가정의 달,  
나만의 도서관은 어디인가요?

오늘의 도서관 5월호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블로그 blog.naver.com/dibrary1004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

페이스북 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

유튜브 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l.or.kr



## 누구나 노인이 된다. 도서관에서도

글 배경재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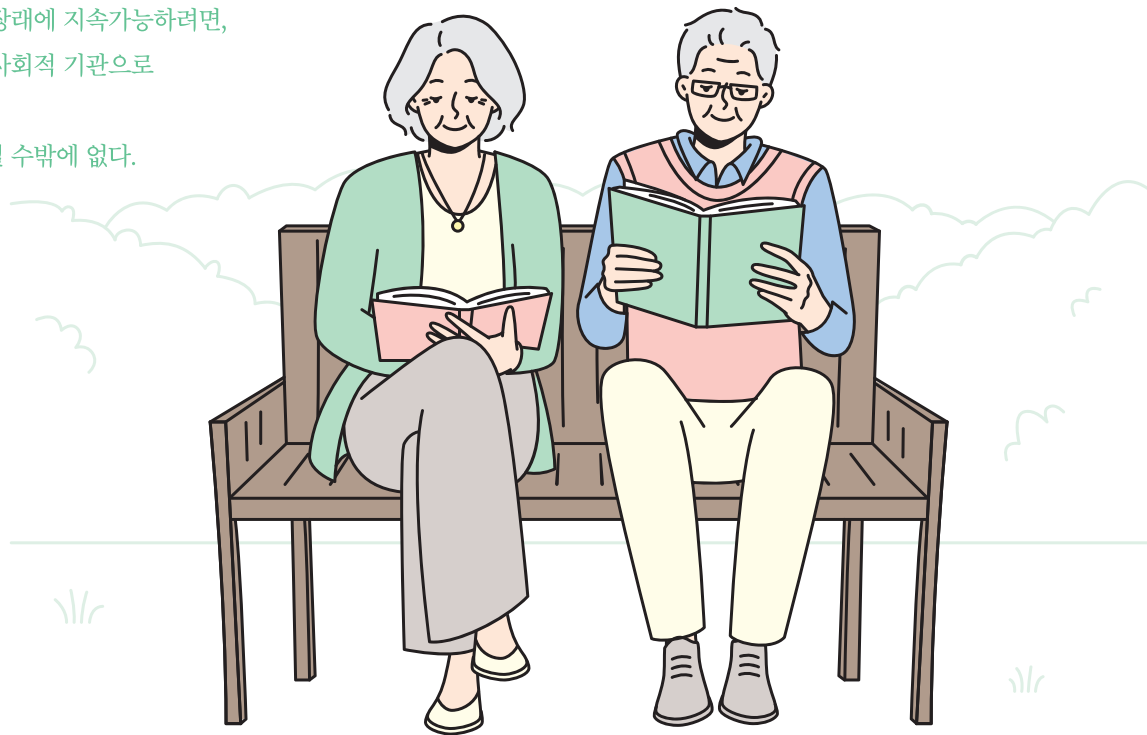
4년 전, 어느 학회 학술 세미나에서 '도서관의 노인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발표할 기회가 있었다. 아무래도 학회 학술 세미나이다 보니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50대 이상 교수님들이었다. 발표 서두에 “여기 계신 모두가 조만간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이야기를 드렸더니, 모두 웃음을 터뜨렸던 기억이 난다. 농담 같지만, 절대적인 사실이다. 누구나 나이는 들고,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 실제로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지식정보 취약계층 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국내 트렌드 분석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는 단연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초고령화 현상과 이로 인한 지역 소멸이다.

도서관이 핵심적인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우리 커뮤니티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약 710만 명) 은퇴가 시작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니 분명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도서관계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어떤 관점에서 준비해야 할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우선 「도서관법」에 명시된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점에서 평등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관점이라면 노인을 위한 특별한 장소와 고유의 서비스를 별도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반면, 최근 도서관 서비스 경향이 이용자 전 생애주기를

도서관이 멀지 않은 장래에 지속가능하려면,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회적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먼저 다가설 수밖에 없다.



지원하기 위한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다. 태어나서부터 삶이 다할 때까지를 도서관 서비스 본령으로 생각한다면, 특별한 이용자 계층 관점보다는 보편적인 세대 중 하나로써 주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집중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관점은 좀 다른 데 있다. 도서관에서 노인이 사라지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 분명 다양한 공공기관과 영리기관들은 노인 고객의 시간과 돈을 가져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할 것이 뻔한 이치이고, 이미 그런 상황은 벌어지고 있다. 지금의 경쟁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과 취약한 상황에 노출된 노인들, 양쪽의 극단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조만간 노인 이용자가 전 세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고객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도서관이 멀지 않은 장래에 지속가능하려면,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회적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먼저 다가설 수밖에 없다. 노인은 지원해야 할 대상이기보다는 모셔 와야 할 고객인 것이다. 노인 이용자를 바라보는 도서관의 전통적인 시각은 다음과 같이 다시 처음부터 이용자의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도서관에서 노인을 배려하되 차별하지 말자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되, 구분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아직 일부 도서관에서는 노인열람실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노인 이용자는 실제로 별로 없거나 있더라도 소수의 단골 이용자일 뿐이다. 노인을 별도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은 노인 이용자에게 '배려'보다도 '차별'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 도서관에 방문하는 노인 이용자를 세분화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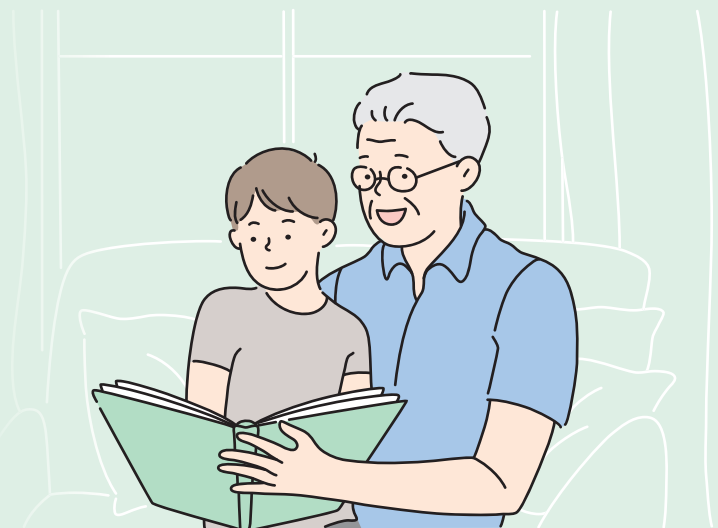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미국 또는 유럽의 국가에서는 노인 이용자를 세분화하여 서로 다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50세에서 65세까지의 노인을 '진입기 노인'(50세 이후부터 공식적인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노인)으로 정의한다. 65세에서 75세까지는 '전환기 노인'으로 건강하고 동적인 생활에서 취약성을 지닌 생활로 전환하는 시기, 75세 이상은 '노쇠한 시기의 노인'으로 정의

한다. 각 세분화된 노인 이용자를 위해 도서관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가 달라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일이다.

### 도서관을 노인이 기여하는 세대 통합 공간으로!

도서관의 큰 매력 중 하나는 특정 세대를 위한 곳이 아닌 보편적인 장소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특정 세대만을 대상으로 제한하거나 문학, 미술, 음악과 같이 그 주제를 제한하기도 하지만 도서관은 모두를 포용하며, 모든 주제와 매체를 포괄할 수 있다. 모두를 포용한다는 의미는 세대끼리 모여 그들만의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세대 간의 긴밀한 교류를 경험하는 걸 의미한다. 지혜를 가진 '노인'이 치열한 고민을 토로하는 '청년'과 같 곳을 모르는 '어린이·청소년들'과 대화하는 세대 통합의 공간으로 도서관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 아닐 수 없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가 더욱 감소하는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 소멸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매우 힘들다고 한다. 최근 멋진 도서관이 새로이 들어서면서 지역에 활력을 주는 훌륭한 국내외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 도서관이 노인 이용자를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보탬이 된다면, 위기의 시대에 시민들로부터 더욱 튼튼한 지지를 받는 우리 삶의 특별한 존재가 될 것으로 믿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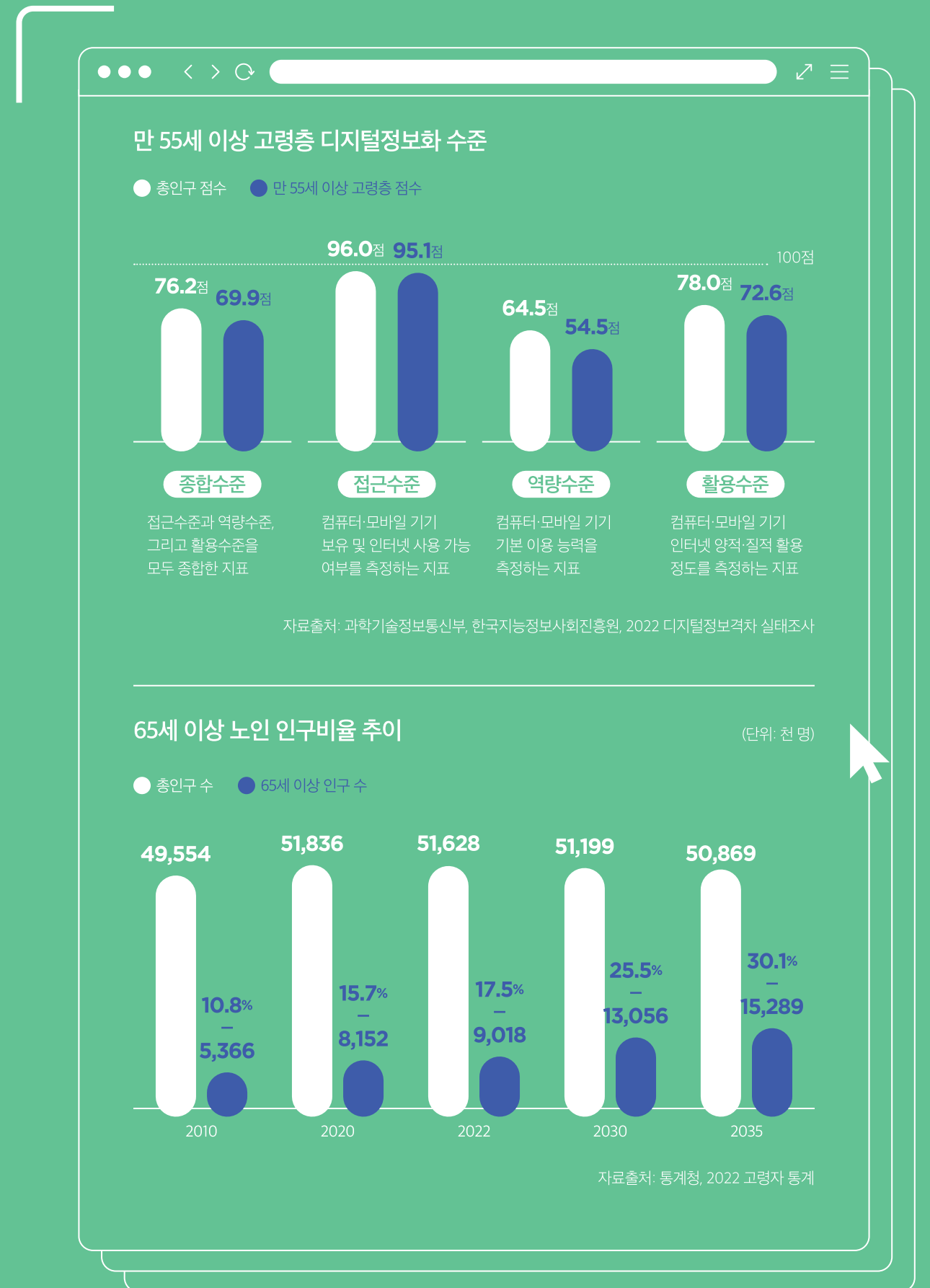


## 지식과 정보의 사랑방이 될 도서관

글 김영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나는 퇴직한 다음 날 어디서 무엇을 할까?” 아마 나는 지역 도서관으로 가서 퇴직 후 첫날을 보낼 것 같다. 현재 대학교수로 일하며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한 번도 학교를 떠나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늘 학교 도서관과 지역 도서관은 내가 거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나를 환대해주는 장소였다. 심지어 해외에 나가서도 도서관에만 가면 마치 집에 있는 듯 편안함을 느꼈다. 그렇기에 퇴직 후의 첫날을 도서관에서 보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테다.





퇴직 후의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고자 하는 계획은 많은 사람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 같다. 약 5년 전에 자료를 찾을 일이 있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디지털도서관에 정말 많은 장년과 노인분들이 앉아서 어떤 분은 책을, 어떤 분은 컴퓨터에 집중하고 계셨다. 심지어 소풍을 온 듯 도시락을 가져온 노인분들도 눈에 띄었다. 강의와 연구의 대상으로 노인을 자주 접하는 내 눈에도 매우 낯선 광경이었다. 그때가 약 5년 전이니 지금은 아마 더 많은 퇴직자 또는 노인분들이 지역 도서관에 출입하는 것 같다. 이를 반증이나 하듯 2018년에 「국립중앙도서관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정보서비스 개발연구」가 수행되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주 이용자로 하는 ‘노인도서관’ 설립의 필요성이 주장되기도 했다.<sup>1)</sup>

어느 도서관에 가도 그 도서관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는 퇴직자 또는 노인분들을 만나는 일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다. 2030년에는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약 25%가 될 것이며, 2020년 65세의 기대여명이 약 21세임을 고려해볼 때 도서관 이용자 중 노인의 비율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65세가 된 이후 또는 퇴직한 사람은 더 오랫동안 도서관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 도서관이 학생과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었다면,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이제 도서관은 지역에서 퇴직자와 노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들이 소중한 시간을 여러 사람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사랑방’ 역할도 같이 수행해야 할 때가 왔다.

사람들은 공간 안에서 살아간다. 한 사회가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있어도 되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의미다.<sup>2)</sup> 도서관이 노인을 이용자로 환대할 때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점차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될 것이다. 나는 노인교육을 연구하면서 교육시설이 노인에게 P-I-C(Potential:

도서관이 노인을  
이용자로 환대할 때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점차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될 것이다.

잠재력 향상-Identity: 정체성 발견-Change: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자주 주장했다. 도서관 역시 P-I-C 기능을 노인에게 제공할 때 노인들이 도서관을 현대의 장소로 인식할 것이다. 나를 포함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언젠가 퇴직자와 노인이 된다.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환대하는 ‘지식과 정보의 사랑방’이 되기를 꿈꿔 보면 어떨까?

#### 노인의 잠재력(Potential)이 향상하는 도서관

미래사회에서 노인의 잠재력 개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디지털 문해력 향상’이다. 현재도 많은 도서관에서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노인의 느려진 인지 속도와 반복 학습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노인들은 젊은 프로그램 참여자와 함께 배울 때 그들이 다른 참여자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불편함을 느낀다. 또한 강사들이 자신들의 느린 학습 속도와 반복 학습에 대한 요구를 이해하지 못할 때 프로그램 참여 중 좌절감을 경험한다. 이를 위해 노인 학습자들로만 구성된 프로그램, 천천히 진행되는 프로그램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인 프로그램 참여자의 어려움을 잘 아는 노인을 디지털 문해력 강사로 섭외하는 섬세한 배려가 도서관을 ‘노인들을 환대하는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다.

#### 노인과 퇴직자의 정체성(Identity)을

##### 함께 만들어가는 현대의 도서관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자서전 쓰기를 반드시 포함하면 좋겠다. 최근 자서전은 글자를 통해 책으로 남기지 않고, 영상으로 기획하는 영상 자서전 집필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아울러 미국에서 시작했으며, 몇몇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실시한 ‘사람책도서관(Human Library)’ 사업을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서 더욱 활발히 실시했으면 한다. 사람책도서관은 사람을 책처럼 이용자에게 제공해 대화를 통해 생각과 정보, 감정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퇴직자와 노인이 사람책이 되어 누군가에게 대어되었을 때 퇴직자와 노인은 자신의 지나온 삶에 보람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퇴직자와 노인은 사람책과의 만남을 통해 앞으로 남은 자기 삶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노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변화시키는(Change) 도서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갖는 편견은 그 대상을 자주 만나지 못했기에 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곤 한다. 도서관이 노인을 자원봉사자로 더 많이 채용할 때 특히 안내 및 교육 등의 대인 업무를 노인 봉사자에게 배정할 때 노인들은 도서관에서 환대받음을 경험한다. 아울러 노인 봉사자들과 어울리면서 젊은 세대들은 노인에 대해 가진 편견을 없앨 수 있다. 나아가 도서관에서 진행된 노인 대상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동아리를 이뤄 지역사회로 나가서 다양한 자원봉사를 수행할 때 도서관은 노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전초지 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 도서관을 거의 매일 사용하는 퇴직 노인 3명에게 도서관 이용 경험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해 탐구한 한 연구<sup>3)</sup>에 의하면 도서관 이용 경험은 노인에게 규칙적 생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몸을 건강하게 해주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힘과 기회를 주고, 노년에 오는 외로움과 슬픔을 잊게 만드는 신경안정제와 같은 곳으로 인식됐다. 우리 사회의 그 어떤 기관도 노인에게 이러한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러기에 현재의 노인과 앞으로의 노인에게 도서관은 너무나 소중한 곳이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의 한 참여자의 말<sup>4)</sup>로 이 글을 마무리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저 없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환영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나를 받아주는 공간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요?” 

퇴직자와 노인이 사람책이 되어  
누군가에게 대어되었을 때  
퇴직자와 노인은 자신의 지나온 삶에  
보람을 경험할 수 있다.



1) 임성관(2020). 노인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2), 323-348  
2) 김현경(2015). 사람, 장소, 환대. 서울시: 문학과 지성사  
3) 이호신(2019). 은퇴노인의 도서관 이용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정보관리학회지, 36(1), 215-246  
4) 이호신(2019). 은퇴노인의 도서관 이용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정보관리학회지, 36(1), 238-239



## 실버 세대가 도서관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

글 신수빈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는 인생 2막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새로운 삶을 향유하는 실버 세대에게는 문화생활을 즐길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다가가기 쉬운 곳이 바로 '도서관'이 아닐까요? 어버이날이 있는 5월을 맞이하여, 오늘의 도서관에서는 우리 주변의 어르신에 대한 관심을 한기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즐거운 문화생활을 위해 변화하는 도서관 문화를 만나봅니다.



### 도서관이

### 직접 찾아갑니다

혹시 '찾아가는 도서관'을 아시나요? 지자체에서는 독서가 쉽지 않은 이들에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보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도서관에서는 운영대상을 지정하고 이용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니, 실버 세대에게는 독서문화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 할 수 있지요.

전남도립도서관에서는 농산어촌 지역 도민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이동도서관 '책책 뽕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책책뽕뽕은 도서 대출뿐만 아니라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DVD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할머니가 직접 책을 읽어주는 '이야기보따리 할머니'는 노년층 여성에게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책을 통해 세대 간 자연스러운 소통 증진을 꾀하는 뜻깊은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도서관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서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은 올해 2월부터 노인복지센터 등 구미시 소재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도서 배달 서비스인 '순화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책 읽는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한몫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립 통진도서관의 경우 오는 12월까지 어르신들의 안방까지 책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도서관 '손안에책'을 진행합니다. 매주 목요일 1회 실시되는 책 배달을 통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지역 어르신들이 지역 도서관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큰글자도서,

### 편안한 독서의 시작

책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빈틈없이 꽉 찬 글씨 때문에 책 읽기가 버거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유튜브 숏츠(Shorts)처럼 짧은 영상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된 요즘, 집중력이 요구되는 책 읽기를 고통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글씨까지 작으니 시력이 좋지 않은 실버 세대에게는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죠.

이렇게 일반 도서를 읽기 어려운 어르신들과 저시력인 등을 위해 제작된 도서가 바로 '큰글자도서'입니다. 확대도서 혹은 대활자본이라고도 불립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독서를 즐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9년부터 '큰글자책 보급 사업'을 시행해왔는데요, 그 결과 공공도서관에 약 14만여 권의 큰글자도서가 보급되었습니다.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선호하는 도서를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큰글자도서로 제작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본문 글자 크기를 기존 15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확대하는 등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력 저하로 인해 독서에 흥미가 떨어지는 노년층에게 새로운 독서환경을 제공하는 서가 조성 및 대출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넘어, 큰글자도서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길 기대해봅니다.



소통하며 어울리는  
실버도서관

통계청의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70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46.4%가 된다고 합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이에 맞는 복지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상황인데요. 도서관도 실버 세대 맞춤 도서관이 하나둘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실버 세대를 위한 ‘실버도서관’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부산 금정구의 은빛 사랑채 작은도서관은 실버 인프라를 구축해 큰 호응을 받은 실버 특성화 도서관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건강힐링교실 그리고 치매예방교육 등이 열리는 배움터를 운영하고 확대경, 큰글자도서, 오디오북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군포시 산본도서관은 1~2층 일부를 실버도서관으로 조성해 올 하반기 재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기억하기 쉽게 차별화된 새 명칭을 만들고자 시민 공모전을 진행해 기대감을 한층 올렸습니다. 1층에는 신문과 잡지를 열람할 수 있는 북카페와 담소를 나누는 실버담소방을, 2층에는 실버자료실, 행복갤러리, 어울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독서 보조기기와 혈압계, 컴퓨터를 비치하고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고 하니, 실버 세대의 공감대가 형성될 실버도서관의 탄생이 더욱 기대됩니다. 📖

# 도서관을 만나다



만남의

도서관

## 5월 실버 세대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 천안 쌍용도서관



- 🕒 3월 28일~6월 14일
- 👤 55세 이상
- ⚙️ - 함께 읽고 체험해보는 시니어 스트레칭
- 식물 탐구생활
- 📍 2층 문화사랑방
- ☎ 041-521-3876
- 🌐 [www.cheonan.go.kr/lib.do](http://www.cheonan.go.kr/lib.do)

### 의정부 가재울도서관



- 🕒 3월 28일~5월 26일
- 👤 60세 이상
- ⚙️ - 로맨틱 플라워 클래스
- 기억 키움 보드게임
- 도전! 스마트폰 활용하기
- 도전! 키오스크 정복하기
- 📍 프로그램실
- ☎ 031-828-8663
- 🌐 [www.uilib.go.kr](http://www.uilib.go.kr)

### 고양 가원시니어도서관



- 🕒 상시
- 👤 만 65세 이상
- ⚙️ - 나의 이야기 책으로 만들어보기
- 시니어뇌블럭
- 디지털문해교육
- 영어간판 읽어보기
- 📍 강의실
- ☎ 031-916-0804
- 🌐 [시니어도서관.com](http://시니어도서관.com)

14 이달의 전시  
깊은 사색으로의 초대  
2023년 고문헌 기증전  
'기억과 나눔'

18 문헌의 가치  
조선 왕실의  
《안태의궤(安胎儀軌)》

26 도서관 여행자  
바로크 양식의 수도원과  
군용 막사에서  
영혼이 있는 도서관으로  
'벨기에 프레디케렌 도서관'

22 꿈을 이루는 도서관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 쉬는 도서관  
'강남구립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

30 도서관 트렌드  
미래를 꿈꾸게 하는 도서관  
'학교도서관'



# 깊은 사색으로의 초대

자료제공 국립중앙도서관

## 2023년 고문헌 기증전 ‘기억과 나눔’

국립중앙도서관은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이 소장한 고문헌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기증 활성화를 목적으로 고문헌 기증전시 ‘기억과 나눔’을 개최하고 있다. 본관 5층 고문헌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2022년 고문헌 기증자 중 16명을 선정하여 필사본 《연암집(燕巖集)》 등 대표 기증자료들을 선보이고 있다. 기증자들을 예우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특별한 순간. 귀중한 자료를 함께 기억하고 나누며 깊이 사색해 보는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01



### 기억과 나눔, 과거의 흔적을 찾아서

4월 12일 제1회 ‘도서관의 날’부터 개막한 고문헌 기증전 ‘기억과 나눔’은 내년 3월 31일까지 본관 5층 고문헌실에서 전시한다. 이번 기증전에서는 16명의 기증자료 530종 985점 중 대표자료를 선별했으며, 고서연구회 전시는 일반단행본을 포함한다. 도입부(외부)에는 전시안내 배너 및 기증자 명패가 설치되어 있다. 내부 프롤로그에는 전시를 여는 소개글과 기증자 명단을 볼 수 있다. 특히 내부 전시는 기증자를 소개하는 패널과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돼 눈길을 끈다. 바닥 시트지는 쌍육놀이판으로 옛사람들의 놀이문화를 기억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각 기증자료는 캡션을 통해 안내되어 있으며, 마지막 에필로그에는 기증 안내 홍보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01 기증자료들이 전시된 내부 공간
- 02 기증문고가 산처럼 쌓이거나 하늘 높이 상승한다는 의미를 지닌 책 오브제
- 03 벽면은 표암 강세황(姜世晃)의 산수화로 이루어져 있다

02



03





04



05



기증자들의 옛 추억을 회상하며,  
대표자료 《연암집》과 《도남문집》

“산촌마을에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자주 이사를 다녔습니다. 9살 아이였던 저는  
족보와 여러 고문헌들을 등에 지고  
약 20km의 산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 김봉희 기증자(53종 99점 기증)

“할아버지는 저희 증조할아버지이신  
도남(道南) 김용주 님의 문집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기르던 소를 팔아서 출판비를 마련하고  
지방의 유지들에게 배포하셨습니다.”  
- 김찬수 기증자(73종 104점 기증)

김봉희 기증자는 대대로 물려받은 안동김씨 족보와 고문헌 등 53종 99점을 기증했다. 9살이었던 기증자는 이사 다닐 때 자료들을 등에 지고 20km의 산길을 걸었던 기억을 회상했다. 또한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의 문집을 출간하기 위해 소를 팔며 애쓰던 모습을 추억한 김찬수 기증자,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한국고서연구회 회원들이 기증한 고문헌 등 16명의 기증자료에는 기증자들의 옛 추억과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대표자료 중 하나인 필사본 《연암집(燕巖集)》은 조선 후기 실학자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문집이다. 연암의 문집에서 서(書), 기(記), 논(論), 전(傳) 부분을 필사했으며, 많이 알려진 열녀함양박씨전(烈女咸陽朴氏傳), 민옹전(閔翁傳), 양반전(兩班傳) 등이 수록돼 있다. 간행본 《연암집(燕巖集)》이 발간되기 이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료적 의미가 있다.

목판본 《도남문집(道南文集)》은 김찬수 기증자의 증조부이자 한학자인 도남(道南) 김용주(金容軾, 1862~1939)의 문집이다. 4권 2책이며 표지에는 ‘도남유집(道南遺集)’이라 되어 있다. ‘계자손시사십영(戒子孫詩四十詠)’ 등의 시와 서(書), 잡저, 잠(箴), 명(銘), 기(記), 행장 등이 수록돼 있다.

06



07



08

## 기록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다

지난 4월 24일에는 2022년 고문헌 기증자를 도서관으로 초청해 기증서 수여 및 기증자 명패를 공개하는 명패 제막식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소장 경위와 기증 이야기를 듣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 전시개요와 기증자 명단 및 기증자료 목록, 기증 경위 설명, 자료 사진 및 해설 등이 수록된 전시도록을 500부 발간해 기증자에게 배포했고, 기증 유치를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도록파일은 한국고문헌 종합목록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 전시는 도서관 이용 사전예약 후 관람 가능하며, 온라인 영상으로도 제작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기증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에서 검색을 통해 서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에서 기증전시를 개최한 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증자들의 고귀한 나눔의 뜻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 역사와 기록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04 《연암집(燕巖集)》(필사본, 1책, 古3648-25-465)

05 《도남문집(道南文集)》(목판본, 2책, 古3648-10-940)

06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내부 전시 모습

07 최창덕 기증자료(42종 42점)

08 고서연구회 기증자료(47종 120점)



## 조선 왕실의 《안태의궤(安胎儀軌)》

글 이미란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사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01

옛날에 아이를 낳은 뒤에 그 태(胎)는 어떻게 처리했을까? 조선시대 민간에서는 출산과 함께 나온 태반(胎盤)을 땅에 묻거나 불에 태웠다. 혹은 물에 띄워 보내기도 했다. 왕실에서는 왕족의 태를 신령스러운 힘을 가져 왕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으로 인식해, 세척한 후 오지향 아리나 돌항아리에 담아 명산(名山)에 묻고, 그 아이의 무병장수는 물론 왕실의 안정과 번영, 왕권의 강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였다. 이를 안태(安胎) 또는 장태(藏胎)라고 하는데 고려시대부터 치러진 의례이다. 궁중에서 출산 이후에는 장태개기사(藏胎開基使)나 안태사(安胎使), 상토관(相土官) 등을 파견하여 길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장태지(藏胎地)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았다. 또한 이를 조성하고 수호하기 위해 주변 백성들에게 막대한 민폐를 끼치게 되므로 문종과 현종, 영조는 이를 개선하려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였다. 정조 또한 개선하려고 했으나 중신들의 건의로 혁파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이런 풍습은 조선 말기까지 이어져 왔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안태의궤(安胎儀軌)》(청구기호: 古貴5213-1)를 통해 살펴보자.

### 안태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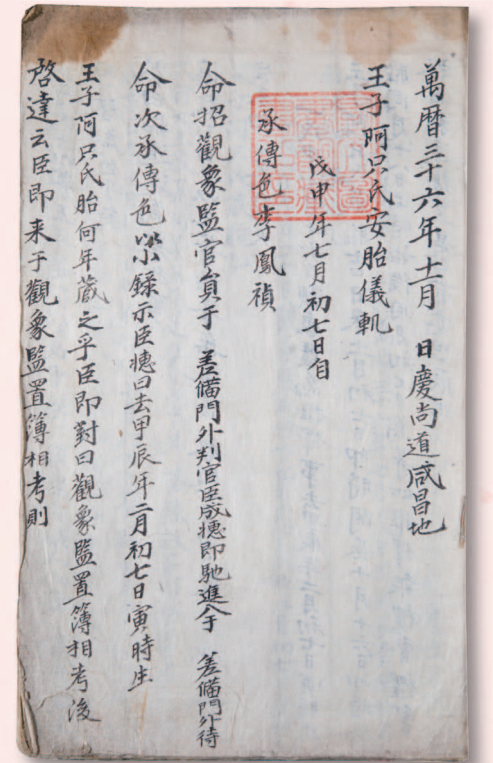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로

《안태의궤》가 있는데,

1946년 구입을 통해 소장된

유일본 자료다.

02



### 11장으로 된 필사본 《안태의궤》

안태 관련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로 《안태의궤》가 있는데, 1946년 구입을 통해 소장된 유일본 자료다. 책의 표지 제목은 '만력삼십육년 십일월일 안태의궤(萬曆三十六年十一月日安胎儀軌)'이고, 본문의 시작 제목은 '만력삼십육년 십일월일 경상도함창지 왕자 아기씨 안태의궤(萬曆三十六年十一月日慶尙道咸昌地王子阿只氏安胎儀軌)'이다. 1604년 2월 7일에 태어난 인흥군(仁興君) 이영(李瑛, 1604~1651, 선조의 13번째 아들로 추정되는 왕자의 안태(安胎)의궤이다. 본문은, 왕(광해군)이 명을 전달하는 승전색(承傳色) 이봉정(李鳳禎)을 통해 관상감 관원을 차비문(差備門) 밖으로 불러 “지난 갑진년(1604, 선조37) 2월 7일 인시(寅時)에 태어난 왕자 아기씨의 태를 몇 년에 안장해야 하는가?”라고 하니, 관상감 관원이 “대행대왕(大行大王, 여기서선 선조)께서 5년 후 이번 무신년(1608)으로 낙점하셨는데, 이 낙점단자로 회계하겠습니다.” 하니, 왕이 “알았으니 속히 거행하라.”는 하교로 시작된다. 이어 시간 순서대로 관상감 등 해당 관아에서 올린 문서들이 기록되어 있다.

- ① 첫 번째 문서: 무신년(1608) 7월 16일 관상감의 추택(推擇)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길일을 11월 7일 묘시로 정하고, 개기(開基)는 10월 16일 묘시로, 발태(發胎)는 10월 28일 병시(丙時)로, 시역(始役)은 10월 7일로 하는 등 안태의 일정이 적혀 있다. 관상감에서 예조에 올린 문서를 예조의 계목(啓目)에 첨부하여 임금에게 올렸으며, 동년 7월 18일 동부승지 박이서(朴彝敍)를 통하여 윤허를 받았다.
- ② 두 번째 문서: 7월 20일 관상감에서 필요 물품과 군사, 장인 등 인력 동원 내용에 대한 문서를 예조에 올리고, 그에 따라 7월 22일 우승지 박진원(朴震元)을 통하여 윤허를

01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안태의궤》

02 《안태의궤》의 권수제면



## 이 의궤는

기존의 의궤를 보고

개인이 형식에 상관없이

사사로이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받은 내용이며, 필요한 인력과 물품의 내역이 후반부에 첨부되어 있다.

③ 세 번째 문서: 7월 20일 관상감에서 안태와 관련한 여러 일을 본도(경상)와 경기, 충청도에 문서를 보내어 해당 도에서 갖추어 둘 내용으로 예조에 올린 문서이며, 길지(吉地)로 정해진 경상도 함창(咸昌)의 고산(孤山)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 금지 조치, 임시 가옥과 곳간 마련 등의 내용이다.

④ 네 번째 문서: 7월 25일 관상감에서 경중(京中) 각사(各司)에서 준비할 물품과 인력에 대하여 예조에 올린 문서에 따라 7월 27일 우승지 박진원을 통하여 윤허를 받은 내용이며, 물품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다.

⑤ 다섯 번째 문서: 8월 7일 관상감에서 안태사(安胎使)로 상의원정(尙衣院正) 조옥(趙穡)을, 서표관(書標官)으로 승문원 정자(正字) 민호(閔護)를 정한다는 내용으로 예조에 올린 첩정이다.

⑥ 여섯 번째 문서: 8월 24일 경상도 관찰사가 역군 100명을 비롯하여 경상도 각 고을에 나누어 정한 인력과 물품을 적어 올린 문서이다. 이어서 안태가 이루어지는 절차와 의식 등 과정을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후토제(后土祭)의 축문은 함창 현감(咸昌縣監) 심종(沈棕)이, 태신안위제(胎神安慰祭) 축문은 예천 군수(醴泉郡守) 홍경소(洪敬紹)와 용궁 현감(龍宮縣監) 이진언(李眞彦)이 올리고 있다. 이어 안태사 상의원정 조모(趙某), 서표관 승문원 정자 민모(閔某), 감역관(監役官) 관상감 봉사 성모(成某), 배태관(陪胎官) 지리학훈도 신모(申某), 주시관(奏時官) 호분위부사맹(虎賁衛副司猛) 김모(金某), 차사원(差使員) 함창 현감 심모(沈某) 등 담당 관원 6인의 좌목(座目)이 있다.

이 의궤는 기존의 의궤를 보고 개인이 형식에 상관없이 사사로이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는 태실 관련 의궤는 17종 정도로 대부분 18~19세기에 작성된 것들인데, 이 책은 비록 원본은 아니지만 비교적 시기가 빠른 광해군 즉위년(1608)의 왕자 안태 기록이다.

### 태실(胎室)에 대한 의궤

태실(胎室)에 대한 기록은 조선 초기부터 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조 2년(1393) 1월 2일에 태실고증사(胎室證考使) 권중화(權仲和)가 돌아와 전라도 완산부(完山府) 진동현(珍同縣)에서 길지를 찾았다고 하면서, 산수형세도(山水形勢圖)와 양광도(楊廣道) 계룡산(鷄龍山)의 도읍지도(都邑地圖)를 바쳤다. 며칠 뒤, 1월 7일 권중화를 보내어 진동현에 태실을 안치하고, 그 현을 승격시켜 진주(珍州)로 삼았다.

조선의 태실은 크게 아가씨(阿只氏) 태실과 가봉(加封) 태실로 구분된다. 왕과 세자의 자녀라면 관상감에서 올린 3망단자(三望單子, 3배수 추천)를 검토한 뒤 장태할 장소를 낙점하게 된다. 이 경우 예외 없이 아가씨 태실이 조성된다. 전기의 경우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사적 제444호)의 사례처럼 태실비와 장태 석물로 조성된 경우가 있었지만, 성종 이후로는

- 1) 《주역(周易)》 건괘(乾卦) 구오(九五)의 문언(文言)에서 공자가 말씀하기를,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구한다(同聲相應 同氣相求)”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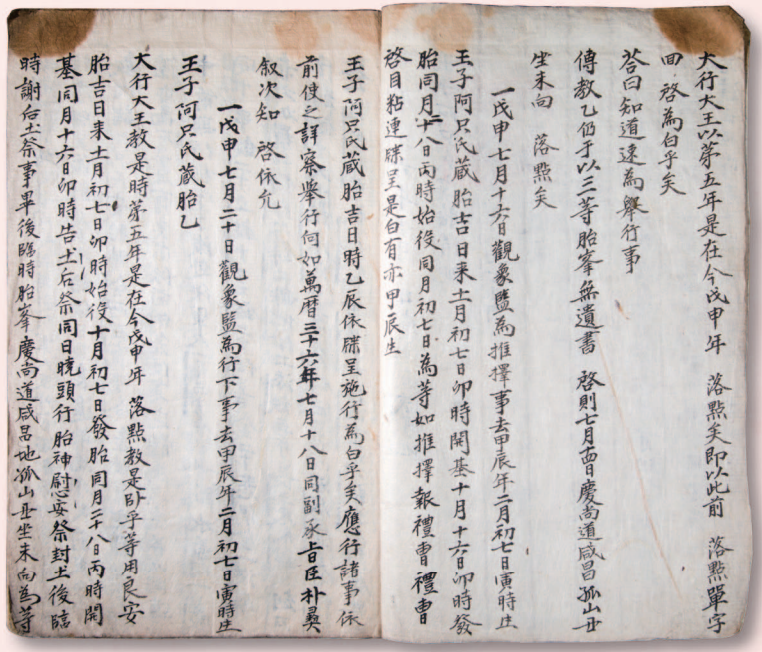
03 《안태의궤》에서 안태할 해와 지명을 정하는 부분

지하에 태함(내부에 태지석과 태향아리 등)을 묻고, 봉분 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아가씨 태실 가운데 훗날 왕이 되는 경우 별도로 태실에 대한 가봉 절차를 밟게 된다. 이때 태실가봉비와 함께 웅장한 규모의 장태 석물이 추가로 설치된다. 물론 예외적으로 세자나 왕비의 태실이 가봉된 사례도 있다.

태실의 조성과 개보수는 왕실의 행사 가운데 하나로 그 과정을 의궤(儀軌)에 기록하여 남겼으며, 예조에서는 《태실등록(胎室騰錄)》을 작성하였다. 의궤는 행사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후일에 참고할 수 있는 모범이 되도록 작성되는 종합 보고서이며, 등록은 행정기관에서 생성된 문서들을 각 관청의 용도에 맞게 시간 순서에 따라 원본을 베껴 적은 2차 기록이다.

태실 조성이 결정되면, 관상감에서는 안태의 과정에 필요한 길지와 길일(吉日), 실무자 차출, 서울의 각 관청 및 태실이 들어설 지역에서 준비해야 할 인력과 물품 등을 작성하여 예조에 보냈다. 예조에서는 관상감에서 보낸 해당 문서를 왕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뒤 관련 관청과 해당 도에 문서를 보냈으며, 왕에게 보고하고 윤허를 받으면서 일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이 의궤에 기록되어 있으며, 《원자아가씨장태의궤(1783)》의 기록에 따르면, 의궤는 어람음 1건과 예조, 관상감, 감영, 본관에 각 1건씩 보관하기 위해 모두 5건이 작성되었다.

보통 형제를 동기(同氣)라고 하지만, 부모나 형제 혹은 신체 일부의 기(氣)는 같은 기운이라고 보는 생각은 오래전 공자의 말<sup>1)</sup>에서도 볼 수 있고, 풍수지리사상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왕자 등의 태를 길지(吉地)를 찾아 소중하게 봉안한 것도 ‘같은 기운을 가진 존재 혹은 존재의 일부가 편한 환경에 있으면 다른 같은 기운을 가진 존재 혹은 존재의 일부도 편안하게 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❷







# 도서관에서 한국 전통문화의 향기에 취하다

##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 쉬는 도서관

‘강남구립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

취재 신수빈 사진 정인수, 강남구립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

### 과거의 지혜와 멋이 어우러진 도서관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강남구립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이하 못골한옥도서관). 2017년 11월에 개관한 못골한옥도서관은 조선시대 후기 성리학자 윤증의 고택을 재현하여 순수 전통 한옥으로 지어졌다. 원래는 한옥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도서관으로 재단장했다.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22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대지면적은 3,704m<sup>2</sup>, 건축면적은 373m<sup>2</sup>이며, 지상 1층과 5개 동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안채(자양당)는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는 자료실 및 유아열람실과 어린이열람실이 있으며, 복도에는 성인을 위한 열람 공간이 있다. 사랑채

도서관은 다양한 문화공간의 역할을 제공하기 위해 특색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도서관은 경건한 장소라는 이미지가 강했다면 최근에는 테마를 더한 열린 도서관이 조성되고 있다. 한옥도서관도 그중 하나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한옥도서관은 바쁜 일상 속 안락한 휴식처가 되어준다. 그중 어린이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맘껏 체험하며 꿈을 키우는 강남구립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을 찾았다.

(울현관)는 못골서당 및 천자문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곳간채(양지당)는 동아리 모임과 멀티미디어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한 넓은 마당에서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전통놀이를 할 수 있으며, 도서관 뒷마당 마루에 마련된 열린 심터에서는 간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현재 2023년 3월 기준 총 3만 967권의 도서자료를 소장 중이며,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도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어린이 단체견학이나 촬영장소 협조 등 외부기관에서 도서관 방문에 많은 관심을 보여 작년 단체견학은 총 295회, 올해는 4월 기준 총 88회 방문을 기록했다. 특히 못골한옥도서관은 어린이들을 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자양당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있다



### 한옥에서 즐기는 전통문화 프로그램

못골한옥도서관은 매년 문화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창 코로나19가 성행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식문화 인문학에 초점을 맞춰 ‘도서관에 가면 장(醬)꽃도 있고’ 프로그램을 장기간 운영했다. 한옥도서관 특성을 십분 활용해 고추장, 강정 등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도 하고, 관련 인문학 강연도 들으며 바른 먹거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를 얻고 힐링하는 시간을 보낸 참여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설날, 정월대보름과 같은 세시풍속과 장담그기, 도서관 텃밭 가꾸기 등 가족 단위 참여 행사가 주를 이루었다. 장담그기의 경우 지역 내 거주하는 장(醬) 명인을 모시고 도서관 장독대에서 진행했으며, 전통국악 연주를 시작으로 손주부터 엄마·아빠, 할머니·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구수한 장(醬) 이야기를 듣고 직접 체험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4월 12일 제1회 ‘도서관의 날’에는 어린이단체를 초청해 동화연극 공연을 선보였고, 뜻깊은 도서관의 날을 널리 알리고 축하하기 위해 어린이들과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 외에도 찾아가는 도서관, 점자책 만들기 등 약자와 동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어린이들이 읽은 책을 기록하고 평점을 매기는 독서카드를 제작·발급하여 책 읽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또한 다가올 여름방학에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북캠프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서관 장독대에서 진행한 장담그기 프로그램



가족이 함께 도서관 텃밭 가꾸기를 체험하고 있다

### 현대적으로 재현한 어린이 과거시험 일필휘지

못골한옥도서관의 프로그램 중 ‘어린이 과거시험 일필휘지’를 빼놓을 수 없다. 옛 선조들의 등용문이었던 과거시험을 체험하고 책에서 얻는 가르침을 되새기고자 현대적으로 재현한 프로그램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행사는 도서관주관을 기념하여 2018년부터 매년 진행해왔다. 참여 어린이들은 유생 의상을 입고 장원급제를 위해 도서관 마당에서 오문오답 문제풀이와 글쓰기 경연을 펼친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임금·신하·포졸 등 실감 나게 분장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어린이들을 응원한다.

4월 15일(토)에 진행된 이번 어린이 과거시험은 ‘봄꽃’과 ‘별명’ 두 가지 시제로 글쓰기 경연을 펼쳤으며, 저학년 15명은 《나비를 잡는 아버지》, 고학년 6명은 《메밀꽃 필 무렵》 선정도서를 읽고 오문오답 독서퀴즈를 풀었다. 올해는 특별히 참관하는 학부모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오행시 짓기 코너를 마련해 온 가족이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를 즐겼다. 또한 심사위원들이 채점하는 막간을 이용하여 흥미진진한 춘향전 공연도 이루어졌다. 장원급제자(저학년 1명, 고학년 1명)에게는 마패와 상장을, 모든 참여자에게는 교지를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특성상 수시로 기상 상황을 체크하고, 만약을 대비해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는 도서관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지역주민들의 협동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도심 속 휴식을 선사하는 문화공간

못골한옥도서관만의 가장 차별화된 점을 꼽자면 바로 넓은 마당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책을 읽다가 언제든지 자료실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린이들에게 큰 활력이 되고, 더불어 도서관 마당에서 가족이 함께 즐기는 전통문화체험과 독서 프로그램은 능동적인 독서문화 확산의 밑거름이 되어준다.

못골한옥도서관은 세 가지의 목표를 세웠다. 첫째, ‘누구나의 도서관’을 지향하며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포용적인 공간개방 확대에 중점을 둔다. 둘째, 한옥의 정체성을 따라 우리 고유의 문화를 계승하고 고취함으로써, 독서와 결합한 전통문화 플랫폼을 조성하고, 특화도서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셋째,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도서관에 대한 잠재적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용 계기를 마련한다.

앞으로도 한옥의 멋스러움이 느껴지는 도서관의 풍경을 배경으로 사람과 책이 중심이 된 도서관, 바쁜 일상 속 휴식이 되어주는 도심 속 한옥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도서관이 되길 바라본다. 📖



넓은 마당과 정자는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이다



“이번 과거시험에 장원급제해서 기뻐요.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니 너무 재밌어요. 유생 의상은 처음 입어봐서 신기했어요. 모자가 많이 무거웠지만, 부모님이 보고 계셔서 꼭 1등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글을 썼어요. 앞으로도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이 행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은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어린이 과거시험 일필휘지

초등(저) 장원급제 정승우 님



“어린이 과거시험은 처음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문제가 어려워서 장원급제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돼서 너무 신기하고 기뻐요. 평소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구연동화도 했었어요.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은 제가 다녔던 딱딱하고 조용한 도서관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재미있는 책을 마음껏 볼 수 있어서 유익하고 좋아요.”

### 어린이 과거시험 일필휘지

초등(고) 장원급제 김채원 님

### LIBRARY INFORMATION

#### 강남구립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

#### 이용 일반자료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오전 9시~오후 5시

**휴관** 매주 월요일 /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7길 3

☎ 02-2226-5930







Het Predikheren  
Bibliotheek Mechelen

## 바로크 양식의 수도원과 군용 막사에서 영혼이 있는 도서관으로 ‘벨기에 프레디케렌 도서관’

글, 사진 조금주

### 풍성한 이야기를 품은 도서관

수도회의 목적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단으로부터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는 것이다. 그들은 설교를 통해 이를 수행하며, 메헬렌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수사들은 대중 앞에서 연설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훈련을 받았다. 1657년에서야 수도원을 짓겠다는 그들의 계획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프레디케렌의 첫 번째 돌이 세워졌지만, 재정 부족으로 인해 건립은 단계적으로 수행되었고 완성에만 80년 이상이 걸렸다. 건물 형태는 동쪽을 향한 기도실이 있는 예배당과 인접한 직사각형의 회랑이 아케이드를 통해 안뜰과 공용공간을 연결하는 구조이다.

02



네덜란드어로 ‘설교하는 신사들’을 뜻하는 프레디케렌(Predikheren)은 엄격한 가톨릭 신앙의 도미니크(Dominicans) 수도사들을 의미한다. 17세기 초, 네덜란드의 스헤르토헨보스(s-Hertogenbosch)<sup>1)</sup>시가 개신교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수도사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고향에서 쫓겨난 수도사들은 20년 동안 도망 다니다 마침내 벨기에의 메헬렌<sup>2)</sup>시에 정착하게 된다. 그들이 새롭게 세운 수도원과 교회가 지금의 프레디케렌 도서관이다. 군용 막사에서 현재의 모습이 되기까지 아픈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프레디케렌 도서관의 자취를 따라가 본다.

이러한 바로크 양식의 수도원은 프랑스 혁명과 이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이웃 국가들의 점령 및 합병으로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불우이웃을 돕는 시민병원 및 빈민보호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무기고가 있는 군 병원으로 개조되어 군인들의 막사로도 사용되었다. 교회 본당과 측면 통로에 설치된 나무 프레임은 포병 창고가 되고, 바닥과 계단의 조약돌은 말과 수레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원재료로 대체되었다. 통로 벽에는 말의 고삐가 달려있던 고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 경비대의 피난처로 변모되었다. 1977년이 되어 마지막 연대가 이전하고서야 건물은 비워지게 되었다. 1975년부터는 40년 이상 건물이 누수되고 각종 곤충들의 서식지가 되어, 곰팡이가 피고 망가지고 파괴된 채 폐허로 (살아) 남았다.

01 프레디케렌 도서관 회랑 입구.

오른쪽 서가 안쪽에는 도서관 안내실이 있다

02 프레디케렌 도서관 중앙 정원

1) 네덜란드 노르트브라반트(Noord Brabant)주에 있는 도시  
2) 벨기에의 플랑드르(Flanders) 지방의 안트베르펜주에 있는 소도시로, 수도인 브뤼셀에서 약 22km 북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03

### 역사의 흔적과 시간의 마법이 깃든 공간

1980년 메헬렌시는 건물을 보호기념물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21세기 초가 되어서야 새롭고 현대적인 도서관으로 건립할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플랑드르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8년간의 긴 복원작업을 했다. 수도원 건물은 2019년 9월 시립도서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복원 비용에는 약 2,500만 유로(약 360억 원)가 소요되었다.

17세기 바로크 양식의 수도원 건물에는 풍부한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어린이실로 사용되는 아름다운 다락방부터 카페테리아로 변신한 회랑, 낡은 유화 그림 같은 반원형 아치, 원목과 오크 빔의 천장 구조로 이루어진 넓은 홀에 이르기까지 옛 모습 그대로다. 중앙 정원을 통해 따스한 햇살이 곳곳에 스며들고 은은한 노란 전등 불빛과 어우러지면서 아련하고도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에 검게 그을리고, 칼날에 잘려져 나가고, 못 자국으로 구멍 난 무수한 상처들도 그대로다. 하얗게 부패하거나 썩어서 검게 변한 기둥들과 군화가 밟고 지나간 바닥의 대리석 조각들 그리고 벗겨지고 뜯기며 덧입혀진 벽들은 자신들이 목격했던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는 듯하다. 넓은 창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받으며 말 못 할 고통의 긴 세월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남아 프레디케렌은 마침내 평화로움에 안착한 듯했다. 폐허 건물에서 전통과 새로움의 부조화 사이에서 어렵게 균형을 이루어 낸 벨기에 건축가 바우터 칼레바우트(Wouter Callebaut)는 “때때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싶듯이,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받아들이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프레디케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 벨기에의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에서 즐기는 모임

프레디케렌에서 사람들은 창가에 앉아서 책을 읽고, 긴 복도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가만히 신문을 뒤적거리고 있다. 커다란 크로커다일이 수호신처럼 지키고 앉아있는 오크 빔 서까래 아래에서 어린이들은 사서의 스토리텔링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등에 천사 날개를 달고 돌아다니는 나이 든 사서 아저씨의 안내로 무언가를 함께 만들기도 한다. 구석에는 아이와 함께 도서관을 방문한 아빠가 아이를 끼고 소곤소곤 나직하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도 볼 수 있다. 2층의 살만 루시디(Salman Rushdie), 엘레노아 루즈벨트(Eleanor Roosevelt), 에밀 졸라(Emile Zola), 한나 아렌트(Hanna Arendt), 넬슨 만델라(Nelson Rolihlahla Mandela) 등 유명 작가들의 이름이 붙은 각각의 방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음료를 마시며 토론하고 있다.

프레디케렌은 지역주민 모두의 사회 문화적 관심에 부응하고,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며, 이를 소장 장서 및 활동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프레디케렌은 건축학 측면에서 매력적인 장소이고,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을 위한 최적의 기관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가볍게 식사와 차를 즐기는 곳이기도 하다. 미술랭스타 셰프가 운영하는 미식 레스토랑 티넬레(Tinelle)에서 천천히 코스 요리를 음미할 수 있고, 건물 복도에 있는 카페 겸 바인 바빕(Barbib)에서 커피를 마시고 가벼운 샌드위치를 먹을 수도 있다.

04



05



06

프레디케렌은 이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두 팔 벌려 환영한다. 회원 가입은 누구나 가능하다. 소장 장서는 약 20만 권이다. 도서 대출은 15권까지 4주 동안 대여할 수 있다. 19세 미만은 무료이지만, 만 19세부터 메헬렌 거주자, 유효한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 교사는 연간 1.50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메헬렌 비거주자는 17.90유로의 회비가 있다. 멤버십은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15권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항은, 상호대차로 다른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할 경우 권당 2.90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예약 도서가 도착하면 8일 이내에 수령이 가능하다. 만약 예약하고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수령 예약 비용으로 미대출 품목당 1.20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2019년 9월에 문을 연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프레디케렌 도서관을 찾고 있다. 도서관 이용률과 반응, 방문자 수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메헬렌 시장은 개관식 축하에서 프레디케렌 도서관은 ‘문학적 웰빙센터’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 그의 표현처럼, 새로운 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 거실과 공부방, 문화적 오아시스, 그리고 정보를 얻고 휴식을 취하는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다. ❷

03 대리석 바닥에 새겨진 글씨와 그림들은

과거 수도원이었음을 알려준다

04 자료실 지붕 아래 서까래에 목각의 크로커다일이 앉아있다

05 어린이실로 사용되는 아늑한 다락방

06 프레디케렌 도서관 1층에 있는 티넬레 레스토랑

### 【조금주】

도서관 건립 컨설팅, 도서관 운영자문, 사서 교육 등 도서관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넥스트 라이브러리(Next Library)>의 대표. 틈날 때마다 세계 각국의 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뒤 훌쩍 배낭을 짊어지고 그곳들을 찾아다니며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의 도서관을 꿈꾸고 있다. 《내 마음을 설레게 한 세상의 도서관들》(2020) 등을 집필했다.

여행 더하기	여행 더하기	여행 더하기
<p><b>벨기에 프레디케렌 도서관</b></p> <p>📍 Goswin de Stassartstraat 88, 2800 Mechelen, Belgium</p> <p>🕒 화, 목 오전 10시 30분~오후 7시 30분 수, 금 오전 10시 30분~오후 5시 토 오전 10시~오후 4시, 일 오전 10시~오후 12시 30분 (월요일 휴무)</p> <p>☎ +32-15-40-44-70</p>	<p><b>막사 도신(Kazerne Dossin)</b></p> <p>유대인 구치소가 있던 상징적 장소에 세워진 현대적인 박물관</p> <p>📍 Goswin de Stassartstraat 153, 2800 Mechelen, Belgium</p> <p>🕒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주말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수요일 휴무)</p> <p>☎ +32-15-29-06-60</p>	<p><b>성 요한 성당(Sint-Janskerk)</b></p> <p>아름다운 조각과 그림을 볼 수 있는 바로크 양식으로 만들어진 성당</p> <p>📍 Sint-Janskerkhof, 2800 Mechelen, Belgium</p> <p>🕒 화-일 오후 1시~오후 4시 (월요일 휴무)</p> <p>🌐 torensaandedijle.mechelen.be</p>



# 미래를 꿈꾸게 하는 도서관

## ‘학교도서관’

글 정은주 사진 권경진 사서교사, 유순봉 사서교사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학교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 학생과 교원의 학습과 교수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학생들이 책 읽기를 통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여러 교과와의 연계 수업을 통해 융·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 진화하는 중이다. 최근 새롭게 리모델링되고 있는 학교도서관은 북카페 분위기의 편안하고 밝은 공간 구성을 통해 학생들을 환대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이런 학교도서관의 공간 구성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서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이루어진다. 학생들이 책 속에서 꿈을 찾고 미래를 꿈꾸게 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당곡고등학교 도서관과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도서관을 함께 탐방해보자.



SCHOOL LIBRARY

### 공간에 재미를 더하다, 당곡고등학교 도서관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당곡고등학교의 도서관은 2020년 새 단장을 했다. 언뜻 보면 학교 안 공간이 아니라 큰 프랜차이즈 서점을 생각나게 한다. 환하게 열린 공간은 책을 읽으러 오는 학생들에게 오래 머물고 싶어지게 만든다.

도서관 공간이 혁신적일 수 있었던 것은 건축가와 학교 행정실, 학부모 위원, 교사 위원, 학생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어우러지며 ‘공간의 재미’에 대해 이야기가 모였고, 공간이 개방적이고 밝은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는 사서교사의 의견과 새로운 공간을 만들려는 여러 사람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도서관에 들어가면 주제별로 책들이 모여 있는 북 갤러리가 있고, 그 안에 창가를 중심으로 자습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 등 여유가 날 때마다 학생들이 둘러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공간이다. 여러 유형의 자리들이 있어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곳에 앉아 자유



수업 장면



도서관 활용 수업이 진행되는 공간



자료실 전경



빈백이 있는 자습공간

롭게 책을 읽을 수 있다. 예쁜 색상의 빈백이 있는 평상형태의 자리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 중 하나다.

또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라운지 같은 둥근 공간에 동그란 테이블이 놓인 수업공간이 나타나는데, 이곳에서 교과 연계 도서관 활용 수업이 진행된다. 벽면으로는 그룹 공간이 있어서, 동아리나 여러 독서 모임 등 소모임 활동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도서관 내부에 화장실과 정수기가 있어 편리하며, 공간과 공간 사이 턱이 없어 배리어프리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다.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아침독서 ‘책함성’,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꿈책 독서 모임’, 주제별 심화독서를 통해 진로를 간접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드림 리터러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들을 올해도 운영한다.



카페 분위기의 자료실 전경

조명에 신경 쓴 서가

아늑한 열람석

### 목련처럼 유려하게,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목련오름도서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는 '목련 오름'이라는 교학의 이름을 품고 있는 학교도서관이 있다. 2021년 3월에 교실 4개의 크기로 새롭게 단장한 도서관으로, 혁신적인 공간 구성으로 주목을 받는 곳 중 하나다. 책이 빼곡히 꽂혀있는 서가가 없다면 어느 프랜차이즈 카페를 연상하게 한다. 곡선을 따라 서가와 열람공간이 배치되어 있고, 공간마다 책을 읽기 좋은 채광과 조명이 갖추어져 있다.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수업공간도 잘 갖추어져 있어 학생들의 창의적인 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동아리 활동, 문학 읽기와 북 토크 등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어 책 속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끊임없는 진화로 학교도서관의 공간혁신을 이룬 서울 중랑구 송곡여자고등학교 도서관, 계단식 공간이 돋보이는 서울 강서구 삼정중학교 도서관도 미래 학교도서관의 모습이 궁금한 사람이라면 눈여겨보면 좋겠다.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수업공간

###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는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이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립 초·중·고교 도서관 1만 222관 중 사서교사 또는 사서가 배치된 학교도서관은 4,673관(45.7%)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고 자습하는 학습공간,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 학생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수업과 특강을 통해 폭넓은 지식과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학교도서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을 이끌어나가는 사서교사나 사서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학교당 1명 이상의 사서교사 등을 두어야 한다는 법률상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사서교사, 사서 등 전문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 아쉽지만 하다.

학교마다 이용하는 주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도서관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을 학생들의 꿈으로 채워나갈 사람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 학교도서관은 학생들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공간이 될 것이다. 📖

### | 정은주 |

(사)안산공동체미디어 방송국장이자 인권지원단체 '지구인의 정류장'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여전히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별 이웃들을 만나고 있으며 이용자의 역사가 담긴 책이 모여드는 곳, '지구인의 도서관'을 기획 중이다. 저서로는 《즐거운 다문화 도서관》이 있다.

# 공감을 펼치다



### 34 북데이터

한눈에 보는 뉴실버 세대  
독서 트렌드  
60대 이상 인기대출도서  
분석 결과

### 36 오늘의 만남

알수록 깊이 있는 미술 이야기  
미술사학자 양정무

### 44 고전 드라마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  
헤르만 헤세 《데미안》

### 40 K-인문학

'나빌레라'  
무거운 삶과 가벼운 꿈

### 48 오감독서

음악에 담긴 기억으로  
'나'라는 소우주를 탐색하다  
무라카미 하루키 《일인칭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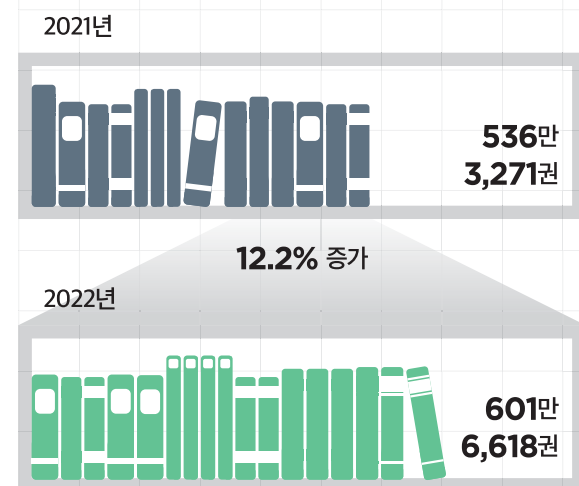
# 한눈에 보는 뉴실버 세대 독서 트렌드

## 60대 이상 인기대출도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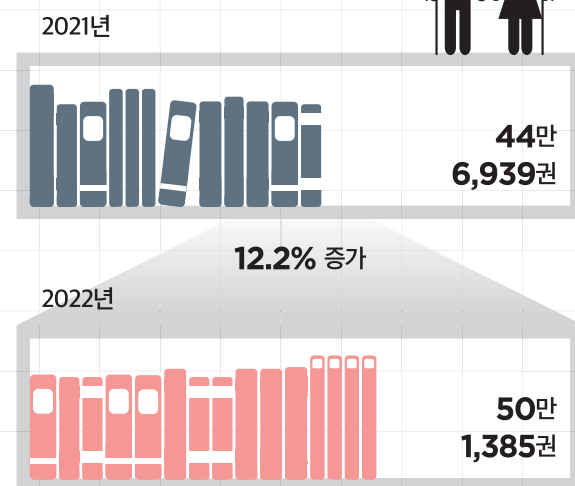
2021~2022년 60대 이상 공공도서관 대출량

(단위: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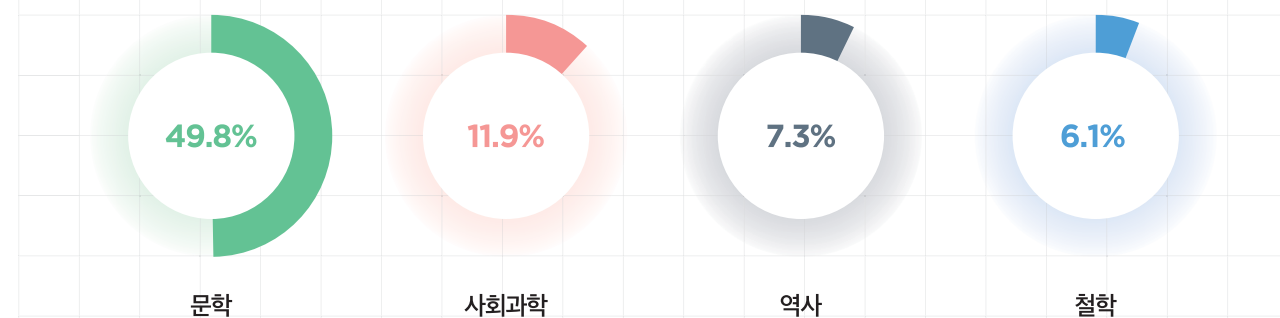
### 1년 총 대출량



### 한 달 평균 대출량



2022년 주제별 대출 분석



2022년 60대 이상은 601만 6,618권을 대출했고, 한 달 평균 50만 1,385권을 읽었다. 주제별 대출 분석을 살펴보면 문학이 49.8%로 다른 분야보다 월등한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로 사회과학, 역사, 철학 분야가 순서대로 인기를 끌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인문학적 지식을 채우고자 하는 뉴실버 세대의 열망을 잘 보여줬다.

국내에서는 '뉴실버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뉴실버 세대란 기존의 실버 세대와 달리 사회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고,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즉 젊은 층 못지않게 자기 계발과 여가 등을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 열풍'이 불고 있다. 그렇다면 뉴실버 세대의 독서 트렌드는 어떨까. 주제별로 데이터를 분석한 '60대 이상 인기대출도서 분석 결과'를 함께 알아본다.

자료출처 도서관 정보나루(data4library.kr) 분석기간 2022. 01. 01~2022. 12. 31.

2022년 60대 이상 인기대출도서

### 문 학



### 사회과학



### 역 사



### 철 학



문학 분야는 4대에 걸친 재일조선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파친코》가 1위를 차지했다. 사회과학 분야는 지리라는 렌즈를 통해 세계를 조망한 《지리의 힘》, 역사 분야는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류 문명화에 대한 거대한 서사를 다룬 《사피엔스》, 철학 분야는 시대의 지성, 이어령 전 장관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 큰 인기를 끌었다. 📖



## | 양정무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한국예술연구소 소장과 19대 한국미술사교육학회 회장, 한국미술경영학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미술사를 풀어내는 데 일가견이 있어 현재 여러 방송 채널과 대중강연에 참여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 시리즈가 있다.

## 알수록 깊이 있는 미술 이야기

### 미술사학자 양정무

취재 신수빈 사진 정인수

## 01

**오늘의 도서관 독자들에게 간단한 소개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양정무입니다. 저의 전공은 미술사입니다. 제가 미술사라고 말하면 마술사냐고 되묻기도 합니다. 미술사가 아직 낯선 학문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술사는 문자 그대로 미술의 역사를 공부하는 학문으로, 화가들의 생애나 명작의 의미를 파헤치는 멋진 학문입니다. 저는 미술사학자로서 미술에 대한 글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방송 출연이나 대중강연을 통해 미술의 사회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를 대중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 02

**서양미술사를 전공하셨어요. 미술사학 중 서양미술사에 눈을 뜨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한국미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서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외국에서는 이왕이면 서양적인 것을 공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선택한 전공이 '르네상스'였습니다. 르네상스를 공부하면 서양미술의 정수를 공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르네상스는 의미가 고대의 부활이니 고대를 잘 알아야 하고, 중세의 연장이니 중세도 공부해야 하죠. 무엇보다 르네상

스런 친절한 설명과 방대한 지식으로 수많은 대중을 미술사의 세계로 이끈 양정무. 지난해 그는 대표작인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 7권을 펴냈다. 미술의 재미와 감동, 깊이 이를 모두 전달하는 이 역작은 어느덧 8권을 향해가고 있다. '인문학의 꽃'으로 불리는 미술사를 우리 사회에 알리는 데 관심이 많은 양정무는 '미술의 프로메테우스'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불처럼 우리 삶에 필수 불가결한 세계, 양정무의 미술 이야기를 들어본다.

스는 근대의 시작이니까 르네상스를 공부하면 서양문명을 거의 아우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결정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03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미술원에서 20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담당하시는 미술이론과는 무엇을 배우는 학과인가요?**

저는 지금 미술사학자로서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술사가 좀 역사적인 연구라면, 미술이론과는 미술사뿐만 아니라 미술비평과 미술경영 이러한 전공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일하는 연구자를 큐레이터 또는 학예연구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학예연구사를 길러내기 위해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의 사회·역사적인 의미를 좀 더 포괄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미술 비평가를 양성하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 04

**미술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교수님만의 강의비법은 무엇인가요?**

보통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방송이나 대중강연과는 달리 조금 딱딱하게 진행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대학교육에서



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기 때문에 팩트 체크나 논리 전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방송이나 대중강연에서는 아무래도 흥미 위주로 강의를 재미있고 업된 상태에서 하게 되죠. 대부분의 일반인에겐 미술이 아직 어렵고 때론 낯설게 다가오는 면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대한 평범한 눈높이에서, 즉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면 쉽게 던져야 할 질문에서부터 연구나 강의의 시작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05

**미술을 배워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미술을 배우면 얻게 되는 것들이 있다면요?**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글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찍부터 문자 읽는 능력을 굉장히 중시하고, 어렸을 때부터 글을 읽게 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읽는 능력을 ‘리터러시’라고 하는데요. 미술이나 시각기호를 읽는 것을 ‘비주얼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미술은 아주 이야깃거리가 많고 정보량이 촘촘한 시각기호이죠. 미술은 단순해 보이지만 역사가 길어서 다양한 해석과 근거를 갖기도 합니다. 미술도 글자처럼 읽어나가야 하는데, 영어 알파벳 A, B, C처럼 기본적인 지식을 쌓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미술은 글로 쓴 텍스트와는 달리 우리의 감정이나 상상력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답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더 흥미진진하고 다양한 해석을 끌어낼 수 있죠. 미술이란 세계를 알게 되면 우리 삶이 더 풍부해질 겁니다.

## 06

**대중강연뿐만 아니라 시사 교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동하시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또 기억에 남는 활동 혹은 에피소드가 궁금해요.**

대중강연이나 방송에서는 되도록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미술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평상시에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요즘 방송 프로그램 중에는 패널들이 앉아서 질문하는 강연이 많은데, 그런 질문들이 저한테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때가 많고 어떨 때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질문들을 던져서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아는 지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에 출연하게 되니까 젊은 유튜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많은데, 새로운 젊은 감각을 배우게 되고요. 미술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자극을 받게 됩니다.

## 07

**‘양정무’라는 이름이 미술계 또는 인문학 분야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불러주신다면 굉장히 영광인데요. 아직 저는 그만큼 유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의 이름보다는 화가의 이름, 작가의 작품이 더 빛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한국의 공브리치’라는 평가도 받는데요, 실제로 공브리치 교수님은 작고 하셨지만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도서관에서 자주 만났고, 특강을 통해서 배우기도 해서 가깝게 느껴지는 대학자셨어요. 저를 ‘한국의 공브리치’라고 불러준다면 영광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꿈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미술의 프로메테우스’가 되고 싶어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다면, 저는 미술이 불처럼 우리 삶에 필수 불가결한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거창하지만 그래도 이왕 꾸는 꿈이라면 커야겠지요.

## 08

**일반인들이 현대미술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원로 경제인께서는 현대미술 중 추상미술을 아주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는지 여쭙봤더니,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추상미술을 보면 답이 없어서 좋아.” 우리가 너무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현대미술이 어렵고 난해하게 보일 수



양정무의 대표작 《난처한 미술 이야기》 시리즈

있는데요. 그냥 현대미술은 음악 리듬에 몸을 맡기듯 편하게 감상하면, 우리한테 도리어 더 많은 이야기를 천천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현대미술 작품을 하나둘 보게 되면 어느 순간 혹은 들어오는 작품이 생기는데요. 그때 작가나 작품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됩니다. 좋아하는 현대미술 작가가 한두 명씩 생기다 보면 어느새 현대미술의 애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 09

**2016년에 1, 2권을 출간하며 첫선을 보인 《난처한 미술 이야기》 시리즈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역사학자로서 ‘통사’를 써보고 싶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제 꿈이었어요. 원시, 고대부터 현대까지를 아우르는 20권짜리 대하소설을 역사 안에서 써보고 싶었던 것이죠. 런던에서 유학할 때도 전공이 아닌 분야의 자료를 모으고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관계된 작품을 유심히 봤고요. 그런 준비가 오래 쌓이다가 2012년 사회평론 출판사로부터 사내 강의를 요청받았는데요. 당시 강의가 반응이 너무 좋아서 3~4년 동안 준비를 거쳐 《난처한 미술 이야기》 1, 2권이 2016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 10

**지난해에 7권을 내셨어요. 시리즈는 몇 권까지 나올 예정인가요? 또 기억에 남는 독자들의 반응, 후기도 궁금합니다.**

《난처한 미술 이야기》는 총 10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권은 원시 고대 미술, 3~4권은 중세미술, 5~6·7권은 르네상스입니다. 올해 안에 8권을 내는 게 목표인데요, 8권은 17세기 바로크미술입니다. 9권과 10권은 2025년에 동시 출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권은 ‘귀족과 미술’을 주제로 프랑스 혁명 이전 신분제하에서 귀족과 미술의 관계를 다루고, 사라지고 있는 귀족 문화를 미술로 복원하려 합니다. 마지막 10권은 ‘시민과 미술’을 주제로 프랑스 혁명 이후 특히 새로운 근대시대의 주인이 된 제3신분인 시민들이 어떻게 미술과 관계 맺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10권의 마지막 부분은 한국의 현대미술까지 멋지게 다뤄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독자들은 너무나 많지만, 이 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많이 봤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완간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실망시켜 드리지 않게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유학 시절 런던대학교 워버그 연구소 도서관에서

## 11

**즐거 찾는 도서관 혹은 애정하는 도서관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이유도 함께 들려주세요.**

저에게 인생의 도서관이 있다면, 런던대학교의 바르부르크 연구소 도서관입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워버그(Warburg)라고 합니다. 제가 거의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냈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서 책을 읽고 다닐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책 속에 둘러싸여 있고요. 집에 가면 책이 더 많습니다. 책을 좋아해서 모든 도서관에 가는 걸 좋아하고요. 해외여행을 가셔도 도서관에 찾아가서 책을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도서관이야말로 행복의 파라다이스죠.

## 12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현재 저의 최고 관심사는 《난처한 미술 이야기》를 완간하는 겁니다. 2025년이면 첫 책이 나온 지 10년이 되는 해라서 그때까지는 꼭 완간하고 싶고요. 지금까지 응원해주시던 독자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좋은 책으로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술사학자 양정무의  
인터뷰 영상은 국립중앙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나빌레라’ 무거운 삶과 가벼운 꿈

글 정덕현 사진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 (주)슈퍼코믹스튜디오

내가 나비의 꿈을 꾸는 것일까. 나비가 나의 꿈을 꾸는 것일까. 《장자》에 등장하는 ‘호접지몽(胡蝶之夢)’은 중국의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어 즐겁게 놀다가 깬 뒤에 자기가 나비의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자기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한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 말은 이른바 ‘물아일체(物我一體)’ 즉 자아와 외물은 본디 하나라는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우리네 인생이 백 년을 산다 해도 한여름 밤 찰나의 꿈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고사에서 나비를 등장시킨 건 아무래도 그 나풀나풀 날아다니는 가벼움과 무관하지 않을 듯싶다. 가볍게 날아다니는 나비와 한 자락 꿈이 너무나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더없이 버겁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삶이지만 그것이 한낱 가벼운 꿈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걸, 이 호접지몽의 나비는 그 가벼운 날갯짓으로 우리에게 알려준다.

### 삶은 무겁고 꿈은 가볍다

장례식장에서 친구의 죽음 앞에 덕출(박인환)과 친구들의 얼굴은 꽤 담담하다. 친구 하나가 문득 술 한 잔을 비우며 말한다. “근데 왜 눈물이 안 나냐?” 그러자 덕출이 말한다. “늙으면 이별도 익숙해지니까.” 웹툰 원작을 드라마화한 <나빌레라(2021)>는 그렇게 칠순에 들어 한껏 무거워진 삶을 짊어진 노년의 쓸쓸함으로부터 시작한다. 장례식장을 나와 거리를 걸어가는 덕출의 발걸음은 그 삶만큼 무거워 보인다. 그런데 어느 상가 건물에서 과자를 사서 나오다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저도 모르게 이끌린 덕출은 한 발레 교습소에서 20대 채록(송강)의 발레 동작에 빠져든다. 무거운 삶을 짊어지고 있는 덕출의 눈에 채록은 너무나 가벼워 훨훨 날아오를 것만 같은 한 마리 나비 같다. 칠순의 몸도 또 그 나이에 얹어진 삶의 무게도 만만찮은 덕출의 눈에는, 채록 같은 젊은 나이와 몸이 허락하는 가벼움이 이제는 바랄 수 없는 꿈으로 다가온다. 마치 ‘호접지몽’의 나비를 저도 모르게 따라간 장자처럼 덕출은 손에 잡히지 않는 나비에게 시선을 빼앗긴다.

요양원에 들어간 덕출의 친구 교석(이영석)은 평생 선박을 팔았지만 정작 자기 배 한 척 갖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꿈을 꾸다. ‘전진호’라 이름을 붙인 배를 타고 큰 바다를 향해

하며 고래를 만나는 꿈. 하지만 가벼운 꿈과 무거운 현실의 괴리는 크다. 어느 날 창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그는 ‘전진호’라는 종이배를 접어 마치 종이비행기처럼 날려 보낸다. 가벼운 꿈속에서 그 배는 훨훨 바다 위를 날아가지만, 무거운 현실의 육신은 날지 못하고 땅바닥으로 추락한다. 그는 종이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꿈을 꾸었지만 삶은 무겁게 바닥으로 추락해 그 끝을 마주한다. 교석은 과연 꿈을 이룬 것일까. 꿈이 꺾인 것일까.

<나빌레라>라는 제목은 조지훈의 시 <승무>에 등장하는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를 떠올리게 한다. 조지훈은 스님들이 추는 춤 승무를 보며 ‘나비’를 떠올렸지만, 아마도 <나빌레라>의 덕출은 채록의 발레를 보며 ‘나비’를 떠올렸을 것이다. 어려서 발레리노의 꿈을 꾸며 그 날아갈 듯한 가벼운 나비의 몸짓을 동경했던 덕출이었지만, 무거운 삶은 그를 훨훨 날게 놔두지 않았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하고 싶은 건 해본 적 없이’ 살아온 칠순의 나이. 그는 종이로 접은 전진호만 남긴 채 떠난 친구의 죽음 앞에서 다시금 나비를 떠올린다. 한 자락 꿈같은 삶이라는 걸 절감하며 한낱 꿈꾸는 것에 불과할지라도 발레를 해보려 한다.



발레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난 채록과 덕출

한 자락 꿈같은 삶이라는 걸 절감하며 한낱 꿈꾸는 것에 불과할지라도 발레를 해보려 한다.





덕출에게 발레를 가르치는 채록

## { 나눔으로써 가벼워지는 삶의 무게 }

그런데 삶의 무게란 덕출처럼 나이 든 노년에게만 부과되는 것일까. 그 나이에 발레에 도전한다는 것이 주는 버거움으로 먼저 다가오는 건 나이 든 몸의 한계지만, 삶의 무게는 나이 같은 세월에만 부과되는 게 아니다. 덕출의 눈에 나비처럼 보였던 스물셋의 채록 역시 그 삶의 무게가 만만찮다. 아버지는 축구부 감독이었지만 운동부 체벌로 감옥까지 가게 되고 그렇게 축구부가 사라져버리자 채록은 축구를 그만두고 발레의 길로 들어선다. 하지만 같은 축구부원이었던 친구 호범(김권)은 축구를 그만두게 된 분풀이를 얻한 채록에게 쏟아낸다. 20대의 나이에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벼운 몸을 가진 채록이지만, 그 역시 발레리노로서 가볍게 훨훨

날지 못하는 현실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간다. 그걸 목격한 덕출은 호범을 막아서며 팩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준다. “근데, 채록이가 때렸어? 애가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채록이한테 이러는 건데? 안 그래 학생?”

과거에 붙잡혀 더 이상 날갯짓을 포기하려 하는 채록을 바꾸는 건, 놀랍게도 나이 들어 몸도 허락하지 않고 가족조차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도 애써 날갯짓을 하려는 덕출의 모습이다. “채록아. 내가 살아보니까 삶은 딱 한 번이더라. 두 번은 아냐. 내가 아홉 살 때 아버님이 반대를 하셨고 지금은 집사람이 싫어하는데 솔직히 반대하는 건 별로 안 무서워. 내가 진짜 무서운 건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상황이 오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게 기억도 나지 않는 상황인 거지.” 마음을 바꿔 콩쿠르에 나가겠다고 마음먹은 채록은 이제 덕출의 날갯짓을 돕는다. 그의 발레 연습을 도와주고 함께 그를 위한 작지만 일생의 기억에 남을 무대에 오른다.

20대의 나이에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벼운 몸을 가진 채록이지만, 그 역시 발레리노로서 가볍게 훨훨 날지 못하는 현실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간다.



## { 청년과 노년, 꿈으로 소통하다 }

<나빌레라>는 꿈을 향한 노년의 아름다운 도전을 그린 이야기지만, 그 안에 청년 세대와 주고받는 소통의 감동 또한 담고 있다. 나이로 노년과 청년은 그 삶의 무게가 갈리지만, 여전히 꿈꾸고 싶은 가벼움에 대한 열망은 이 두 세대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백 년을 살아도 한여름 밤 찰나의 꿈같은 삶이라는 ‘호접지몽’의 관조적 관점은 노년과 청년 사이에 놓인 나이의 경계를 뛰어넘게 한다. 결국 모든 삶은 무겁고 꿈은 가볍다. 노년이어서 꿈꿀 수 없는 게 아니라, 꿈꾸지 않아서 노년이 아닐까. 그러니 이뤄지지 않을지라도 계속 꿈꿀 수밖에. ❷

<콘텐츠 내용은 드라마 <나빌레라>의 줄거리로 웹툰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백 년을 살아도  
한여름 밤 찰나의 꿈같은 삶이라는  
‘호접지몽’의 관조적 관점은 노년과 청년 사이에 놓인  
나이의 경계를 뛰어넘게 한다.

### [ 정덕현 ]

대중문화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 각종 방송 활동, 강연 등을 통해 대중문화가 가진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있고, 백상예술대상, 대한민국 예술상 심사위원이다. 저서로 《드라마 속 대사 한 마디가 가슴을 후벼팠 때가 있다》, 《다큐처럼 일하고 예능처럼 신나게》 등이 있다.



나이의 경계를 뛰어넘은 덕출과 채록의 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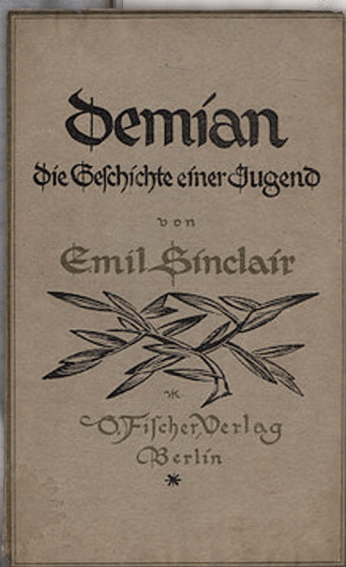
##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

헤르만 헤세 《데미안》

글 김규범 사진 위키피디아

The bird fights its way out of the egg.  
The egg is the world. Who  
first first destroy a  
flies to God. That  
is Abraxas.

Damian



화제의 드라마 <더 글로리(The Glory)>에 등장하는 '강현남'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과 딸을 지키기 위해 주인공과 협력하게 된 여성입니다. 협력의 조건은 남편을 죽여달라는 것, 이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서투르게 시작한 미행과 잠복은 어느새 익숙해졌고, 사진 촬영, 운전 등 해본 적 없던 일도 능숙해졌죠. 그동안 그녀는 '참고 견디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단단한 껍질 안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을 바꿔 그 껍질을 깨뜨리자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졌습니다. 껍질 안에 숨겨져 있던 '명량한 년'이 껍질을 깨뜨리고서야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모습은 '원래부터의 강현남', '진짜 강현남'이었습니다.

“난 매 맞지만, 명량한 년이에요.”

#1



저는 선한 부모님과 교양 있는 누나들  
밑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현재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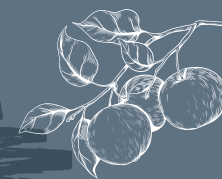
#2



따뜻하고 안락한 집을 벗어나니,  
제가 살고 보는 곳과는 전혀 다른  
어둡고 타락한 세계가 궁금해졌어요.



#3



동네 불량배로 소문난 형의  
눈에 띄고 싶어  
과수원 사과를 한 자루나 훔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4



그런데 불량배 형이 신고를  
안 하는 대신 돈을 달라고 협박했어요.  
결국 돈을 다 주었더니  
이번엔 큰누나를 데려오래요.  
일이 커져서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싱클레어의 자아 찾기 대모험

- 인물관계도 -

## 주인공

## 에밀 싱클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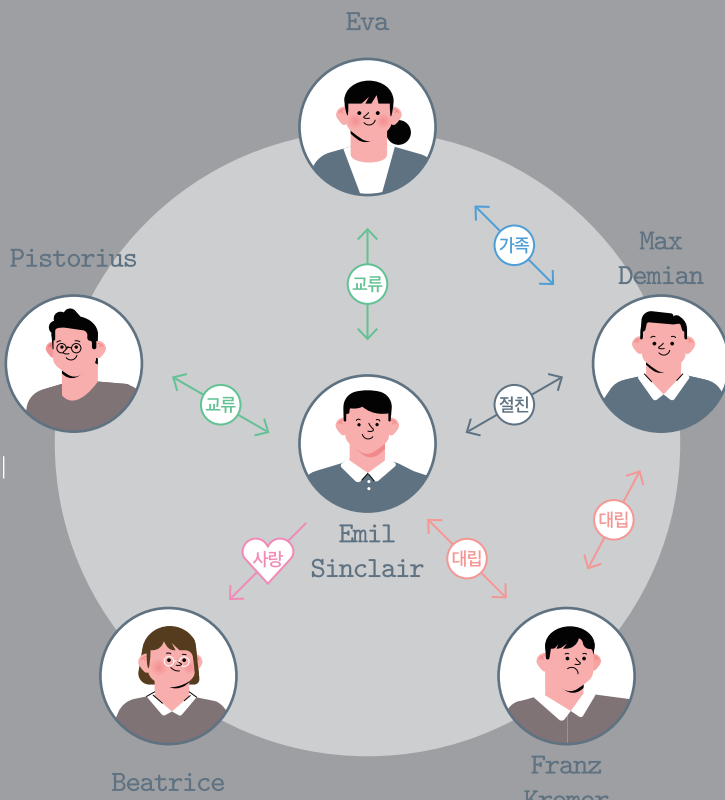
상류층 집안의 착한 아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지만,  
어린 소년에서 청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겪는다.

## 피스토리우스

파이프오르간을 연주하는  
괴짜 목사. 에밀 싱클레어에게  
아브락사스의 개념을 깨닫게  
해준다.

## 베아트리체

에밀 싱클레어가 짝사랑한  
소녀. 에밀 싱클레어가  
베아트리체라는 별명을 붙여  
부르며 숭배한다.



## 에바 부인

데미안의 어머니.  
남다른 포스로 대학생이 된  
에밀 싱클레어를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조력자다.

## 막스 데미안

의젓한 전학생.  
에밀 싱클레어의 내적 성장을  
일으켜준 정신적 구원자이자  
절친으로 핵심적인 인물이다.

## 프란츠 크로머

일명 불량 학생.  
싱클레어를 헐뜯하고  
폭력을 가하며  
어두운 세계로 안내한다.

## 작품읽기 준비 운동: 대립하는 것들을 결합하는 양면성

소설 《데미안》은 ‘삶과 죽음, 자아 성찰, 인간 내면의 갈등’ 등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이 가득하고, 독자의 폭넓은 종교적 지식까지 요구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한 번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브락사스(Abraxas)’의 개념을 간단하게라도 이해하고 읽는다면 어려움이 덜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락사스(Abraxas)’를 비약적으로 설명하자면 ‘각각의 것이 하나로 뭉쳐있는 존재’입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옳고 그름과 같이 서로 구분되어 대립하는 가치들을 하나로 뭉쳐 ‘빛이자 어둠’, ‘선이자 악’이라는 식의 공존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마징가 Z>에 등장하는 ‘아수라 백작’을 떠올리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남녀가

합쳐진 아수라 백작처럼 서로 다른 것이 공존하면서 상황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드라마 <더 글로리(The Glory)> 속 ‘강현남’의 상황에 대입하면 “남편을 죽인다.”, “가정폭력을 견딘다.”라는 대립하는 가치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둘 중 무엇이 옳은 것인지 갈등하지만, 아브락사스는 “옳고 그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택하면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소설 《데미안》은 성장 과정에서의 내적 갈등으로 방황하던 주인공이 ‘스스로의 판단’이라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과정을 ‘아브락사스(Abraxas)’라는 개념을 통해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 줄거리 알아보기: 끊임없는 갈등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는 10살 소년으로 신실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왔지만 ‘밝은 세계’의 따분함을 벗어나 짜릿하고 은밀한 ‘어두운 세계’로의 일탈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웃 아이들과 어울리던 중 강해 보이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늘어 놓아본 싱클레어는 드디어 자신도 어두운 세계를 경험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진짜 어두운 세계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싱클레어의 거짓말을 약점 잡아 헐박과 주먹을 휘두른 불량 학생 ‘프란츠 크로머’를 만난 것부터가 ‘진짜 어두운 세계’의 시작이었죠. 싱클레어는 이제 크로머로부터 벗어나 ‘밝은 세계’로 돌아가려 몸부림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싱클레어 앞에 전학생 ‘데미안’이 나타납니다. 그는 곤경에 처한 싱클레어를 구출했고, 더 이상은 그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으며 자신의 내면에 접근하는 방법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바른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학 문제로 데미안과 떨어져 지내게 된 싱클레어는 얼마 못 가 또다시 ‘어두운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사춘기의 끓어오르는 욕망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사로잡혀 피폐한 삶을 살며 퇴학 위기에까지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소녀를 보고 짝사랑에 빠진 싱클레어는 이름도 모르는 그 소녀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는 그녀에게 멋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행동을 바르게 고치기 시작하더니만 스스로 어두운 세계를 빠져나와 버렸고, 상급학교에 무사히 진학하게 됩니다. 얼마 후 데미안으로부터 도착한 쪽지를 통해 ‘아브락사스’를 알게 된 싱클레어는 교회의 파이프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와의 대화를 통해 “대립하는 것들을 결합하는 양면성”이라는 아브락사스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오랫동안 자신을 압박해온 두 세계 사이의 혼란을 정리할 수 있을 만큼의 성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후 대학생이 되어 데미안과 재회한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을 만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한 청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에 이르는데요. 하지만 그즈음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이들의 만남을 중단시켰고, 전장으로 향한 싱클레어는 폭격으로 정신을 잃고 맙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지

않은 싱클레어는 얼마 후 병상에서 깨어나 다시 한번 데미안과 마주합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너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고, 그 순간 싱클레어는 내면의 성장을 이룬 자신, 모든 고통스러운 일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은 ‘원래부터의 싱클레어, 진짜 싱클레어’였습니다.

##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싱클레어가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데미안의 마지막 말인 “너는 너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해”라는 말과 연결되어 “둘 중 어떤 것이냐”가 아닌 “스스로 선택했느냐”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완성합니다. 싱클레어는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불편을 감지했음에도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이 어디인지 몰랐기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야 할지,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바쁘고 정신없는 삶 속에서도 한 번쯤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미안》의 작가 헤르만 헤세는 그 과정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다수가 뭐라 하든 내가 원하는 길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견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다면, <더 글로리(The Glory)> 속 ‘강현남’의 경우처럼 살인하는 것도 용납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데미안》에 그대로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책을 펼쳐 답을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❷

## | 김규범 |

독서라는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아서 책을 읽고 책을 소개하고 감상을 나누는 공간인 유튜브 채널 <사월이네 북리뷰>를 운영하고 있다. 직장인을 위한 고전 안내서 《고전의 고전》을 집필했다.



# 음악에 담긴 기억으로 ‘나’라는 소우주를 탐색하다

## 무라카미 하루키 《일인칭 단수》

글 신수빈 사진 위키피디아



클래식, 팝, 발라드, 힙합... 음악 애호가라면 누구나 선호하는 음악 장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다 서서히 빠져버린 음악 속에 저마다의 추억이 쌓인다. 기억이란 때때로 가장 귀중한 감정적 자산이 되고, 살아가기 위한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음악에 담긴 기억을 더듬어가는 소설 속 주인공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 《일인칭 단수》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 홍은주 옮김 | 문학동네 | 2020



### 음악 취향이 같다는 건

‘그녀는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못생긴 여자였다.’  
《일인칭 단수》속 단편 <사육제>는 어느 한 남자의 독백으로 시작한다. 1인칭 화자인 ‘그’는 50대 남성으로 혼자 콘서트를 보러 다니며 사람들 틈에서 유대감을 느끼는 클래식 음악 애호가다. 어느 날, 그는 산토리 홀에서 열린 연주회의 휴식시간에 로비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나게 되고, 친구와 함께 와인을 마시던 한 여성과 마주한다. 그는 그녀를 ‘F\*’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들은 함께 와인잔을 기울이면서 프로코피예프의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소한 연대감을 느낀다. 그가 F\*를 두 번째로 만난 장소 역시 콘서트장이었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여성 바이올리니스트 콘서트였다. 공연이 끝난 뒤, 그들은 각자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는다.

“정말로 <사육제>면 되겠어요?

동서고금 피아노곡 중에서 딱 한 곡만

무인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데.”(중략)

그렇게까지 말하니 나도 썩 자신할 수 없었다.

만화경처럼 아름다우며

인지를 초월해 지리멸렬히 펼쳐지는

슈만의 그 피아노곡을 남기기 위해,

바흐의 <골트베르크 변주곡>과, 평균율과,

베토벤의 후기 피아노소나타와,

웅장하고도 차밍한 3번 콘체르토를,

눈 딱 감고 포기해버릴 수 있는가?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F\*는 손의 상태를 점검하듯



몇 번 힘주어 양 주먹을 쥐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당신 취향이 꽤 괜찮네요.

그리고 그 용기에 감탄했어요.

음, 나도 그렇게 할래요, 슈만의 <사육제>만 남기기로.”

- 《일인칭 단수》속 <사육제> 중에서 -

그와 F\*는 피아노곡을 좋아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그들이 궁극의 피아노곡으로 선택한 것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몇 곡과 슈만의 피아노 작품이었다. 그중에서도 슈만의 <사육제>. 음악 취향이 서로 같다는 건 어떤 기본일까. 서로의 고풍스러운 취미생활에 대한 유대감을 형성하기에 아주 충분한 조건이다. 그와 F\*는 사적인 <사육제> 동호회 회원이 되었다. 인원수가 둘을 넘는 일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만큼 슈만의 <사육제>를 애호하는 사람은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두 사람은 이후 정확히 42장의 <사육제> 레코드와 CD를 듣고 <사육제>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의 연주회도 함께 다니며 음악적 교감을 쌓아간다.

열 살 정도 아래의 여성과 자주 만나면 보통 가정에 파란이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그의 아내는 F\*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의 여자친구’라 부를 정도로 그의 아내는 두 사람을 ‘취향 특이한 사람들’이라 치부한다. 두 사람에게 중요한 건 사랑하는 음악에 대해 주고받는 심도 있는 대화와 열의를 품을 수 있는 무언가를 거의 목적 없이 공유하고 있다는 감각 그뿐이다.





## 사스럽지만 나를 뒤흔드는 기억

그가 F\*에 대해 알고 있는 건 남편은 있지만 자식은 없고, 상당히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는 것뿐이었다. 또 음악적 지식이 깊고 폭넓다는 것. F\*는 슈만이 젊어서 매독에 걸렸고, 분열 증 증세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추며, <사육제> 연주자는 카니발 축제 속 환락의 가면을 쓴 등장인물들의 가면과 민낯 양쪽 모두를 음악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누구나 많건 적건 가면을 쓰고 살아가. 가면을 전혀 쓰지 않고 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는 F\*의 말에 왜 그녀가 신비주의를 일관하는지 알 것 같았다. 필시 자신의 무언가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리라.

이후 그는 한동안 F\*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 수많은 클래식 피아노곡 중에서도 슈만의 <사육제>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F\*와 색다른 우정을 나누었던 그는, 그녀와 관련해 갑작스러운 소식을 접하게 된다. 바로 TV 뉴스 속 수갑을 찬 그녀를 보게 된 것이다. 그녀는 수려한 외모를 지닌 연하 남편의 대형 투자 사기 사건의 공범이었다. 사건의 피해액은 10억 엔이 넘었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령자였다. 추악한 민낯을 가리기 위해 여러 가면을 써야 했을 그녀. 그렇기에 그녀는 자신을 슈만과 동일시하게 여기며 <사육제>를 가장 좋아하는 음악으로 꼽지 않았을까. 세월이 흘러 아직도 그는 슈만의 <사육제>를 연주하는 콘서트가 열리면 객석을 둘러보며 그녀를 찾는다. ❷

그것들은 사스러운 내 인생에서 일어난

한 쌍의 작은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와서 보면 약간 길을 돌아간 정도의 에피소드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내 인생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어느 날,

아마도 멀고 긴 통로를 지나, 내가 있는 곳을 찾아온다.

그리고 내 마음을 신기할 정도로 강하게 뒤흔든다.

(중략) 집집의 문을 거세게 두드리고 지나가는

가을 끄트머리의 밤바람처럼.

-《일인칭 단수》속 <사육제> 중에서 -

소설 속에 등장하는  
슈만의 <사육제(Carnival)> 더 알아보기



Robert Schumann

독일 출신의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은 낭만주의 클래식 음악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소설에서 알 수 있듯 <사육제>는 슈만의 초기 피아노 작품이다. 어린 시절 출판업계에서 일하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문학을 접하게 된 슈만은 시를 쓰며 문학적 재능을 음악과 결합해 작곡했다.

1833~1835년 사이에 슈만이 작곡한 피아노 솔로곡인 작품번호 9번 <사육제>는 슈만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곡 중 하나로 평가된다. 사육제는 원래 기독교에서 즐기는 명절을 뜻하는데, 슈만의 <사육제>는 일종의 가면무도회인 카니발(Carnival)을 소재로 한다. 특히 슈만의 독창성과 예리한 인물묘사 그리고 비범한 표현력 등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돼, 유명 연주자들도 이 기교적인 완벽함을 설명하기 부족할 정도로 매력 있는 클래식 음악으로 손꼽힌다.

소설 속 F\*가 베스트로 꼽은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의  
<사육제> 연주 들어보기



# 함께 나누다

오늘의

도서관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6 국내의 도서관 소식

58 내 마음의 문장들  
2023년 네 번째 필사  
김영랑 <오월>

59 오늘의 사진관  
가정의 달,  
니만의 도서관은 어디인가?



## 국립중앙도서관 NEWS

### 01 제1회 ‘도서관의 날’을 축하합니다 ‘도서관의 날’ 맞아 다양한 문화·전시 행사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4월 12일(수) 제1회 ‘도서관의 날’을 맞이하여 광화문광장 도서관캠프 참가,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서고 특별견학 등 관내·외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 광화문광장 도서관캠프에서 만나는 국립중앙도서관

본 캠프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역사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의 사명과 비전, 주요 사업 소개, 다양한 체험코너를 운영했다. 웹사이트 아카이브 ‘오아시스(OASIS)’,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 ‘코리안메모리’, 전국 공공도서관 통합 데이터 플랫폼 ‘도서관 빅데이터’를 소개하고, 융합콘텐츠체험관 ‘실감서재’ 중 2개 작품을 캠프로 이동하여 선보였다.

그 밖에도 ‘도서관의 날’ 축하 댓글 작성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전 국민과 함께 도서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풍성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 국제교류홍보팀 02-590-6323



#### 일반인 출입제한 공간 보존서고 등 특별견학

우리나라의 모든 지식 정보가 보존되어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서고를 특별히 개방했다. 평소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자료보존서고 등을 직접 둘러본 이번 특별견학은 4월 12일(수)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총 두 차례 진행됐으며, 국가대표 도서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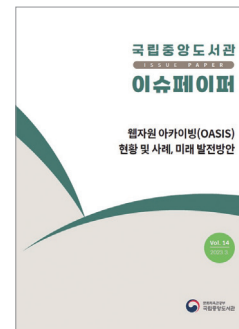


#### 사서의 일상과 감성 공감, 책수레 전시

‘도서관의 날’을 기념한 특별 전시 「책수레 특별전: 책수레와 사서, 함께 사유(事遊)하다」가 4월 12일(수)부터 5월 11일(목)까지 본관 1층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책수레를 매개로 수집, 정리, 보존 등 도서관 본연의 업무지만 잘 보이지 않는 사서의 일과 노력, 고민을 조명한다.



### 02 도서관 미래자원으로서 웹 아카이빙(OASIS) 발전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3월 30일(목) ‘웹자원 아카이빙(OASIS) 현황 및 사례, 미래 발전방안’을 주제로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제14호를 발간했다.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웹자원의 수집과 보존을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오

아시스(OASIS)<sup>1)</sup> 사업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살펴보고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언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제인터넷보존컨소시엄(IIPC)<sup>2)</sup> 일원으로 오아시스(OASIS) 사업 추진을 통해 작년 말 현재 웹사이트 101만 건과 웹자료 144만 건 등 총 245만 건의 웹자원을 수집·보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 국가 주요 재난 관련 웹 기록을 수집한 국가재난아카이브와 선거, 올림픽 등 국가 중요 행사 및 사건 관련 주제·이슈 컬렉션을 구축하여 대국민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는 도서관 관련 동향 및 정책 이슈를 주제로 피디에프(PDF) 형식의 온라인 자료로 발간되는 간행물이며,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 > 도서관 소개 > 발간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메뉴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 기획총괄과 02-590-0799

- 1) 오아시스(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도서관법」 제22조에 의거, 소멸되기 쉬운 인터넷 자원을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 수집·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
- 2) 국제인터넷보존컨소시엄(International Internet Preservation Consortium, IIPC): 전 세계 인터넷 정보자원 수집·보존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35개국 53개 기관이 참여 중

### 03 K-컬처의 기반, 한국 독립영화를 만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23년 첫 번째 독립영화 상영회를 지난 4월 11일(화) 디지털도서관 문화소강당에서 개최했다. 국립중앙도서관 독립영화 상영회는 한국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문화 프로그램이다. 도서관은 2020년부터 서울영상위원회와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제공함과 동시에 독립영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올해 상영회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 14시에 진행되며, 영화에 따라 대화가 있는 영화(GV) 행사가 상영 직후 진행된다. 4월에는 이재은·임지선 감독 작품 <성적표의 김민영>과 곽민승 감독 작품 <말아>를 상영했다. 영화 관람 신청은 도서관 누리집(www.nl.go.kr 로그인 > 신청·참여 > 교육/문화프로그램 > 영화 상영)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 지식정보서비스과 02-590-6306



국립중앙도서관

# NEWS

## 04 국립중앙도서관, '2023년도 납본 유공자' 표창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제도 시행일인 1965년 3월 26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우수 납본 출판사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하고 있다. 올해 납본 유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자는 ▲일반도서 부문 (주)다산북스(대표 김선식), ▲온라인자료 부문 (주)박영사(대표 안종만)이다.

납본 유공자는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라 작년 한 해 동안 법정기일(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준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고,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제도에 적극 참여한 출판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반도서 부문 수상자인 (주)다산북스는 다양한 형태의 출판물을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납본하여 국가 문헌의 영구 보존에 모범적으로 참여했으며, 온라인자료 부문 수상자인 (주)박영사는 온라인자료 1,271건을 납본하여 후대전승은 물론 대국민 지식정보 서비스를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했다. 한편 납본제도 시행일을 기념하여 매년 3월 말에 진행하던 시상식은 각 부문 수상자들에게 표창장과 상패를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 장서관발과 02-590-0659

## 05 눈으로 보는 책에서 오감으로 체험하는 책 읽기까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23년 독서활동 연중 지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전국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책 읽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유발, 즐기고 체험하는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연중 공공·작은·학교도서관 6,000여 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독서활동 운영을 지원한다. 관련 내용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www.nl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명	대상기관(협력)	규모	비고
책 읽어 주세요	체험 프로그램	현장 캠페인	10회
체험 프로그램	노란 앞치마, 안내서	공공·작은·학교도서관	관당 10매 이내
(지식정보취약계층)		공공도서관	120개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4~10월 운영
이야기가 있는 코딩	공공도서관	100개관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	중·고등학교	100개교	
전국 도서관 독서교실	공공도서관	운영 희망 기관 (연 1,100기관 내외)	여름·겨울방학
책 읽기 활용 도움자료	공공·학교·작은도서관	1,500개처	하반기
실감콘텐츠 기반 독서활동자료	공공·작은·학교도서관	500개관/5만 세트	하반기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 02-3413-4776



## 0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관의 날'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 개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제1회 '도서관의 날'을 기념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 먼저, 도서관 앞마당에서 낮 12시부터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 4월의 바람이 불어'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악공연을 통해, 복합문화공

간으로서의 도서관의 가치를 알리고 책과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하였다.

문학작품을 모티브로 하는 음악과 시 낭송, 마임공연으로 구성되어 참여자들이 쉽고 여유를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였다. 이번 음악회를 시작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낮 12시에 도서관 앞마당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개최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도서관캠프'에도 참여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스에서는 그림책 작가 낭독, 해시태그 챌린지 등 '책 읽어 주세요' 범국민 캠페인을 진행했고, 국내외 우수도서를 증강현실로 만날 수 있는 신기술융합 독서콘텐츠 체험 기회도 제공하였다.

그밖에 도서관주간(4. 12~4. 18.) 동안 도서관 1층 꿈창작실에서 새롭게 도입한 드론,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로봇 등을 활용하여 도서관 탐험놀이 및 가족형 미코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에 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서관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에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이다' 이벤트도 진행했다.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정보서비스과  
02-3413-4751

## 07 국립세종도서관, '도서관의 날' 등 4월 다양한 문화행사 운영



국립세종도서관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제1회 '도서관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4월 12일(수) 1층 로비에서는 '나만의 작은 정원' 이벤트를 열어 현재 전시 중인 '지식의 정원' 주제와 연계하여 SNS 팔로우 또는 해시태그 인증한 100명에

게 선물을 증정했다. 아울러 같은 날 저녁 7시 작가와의 만남 행사에 《우는 법을 잃어버린 당신에게》의 저자인 김영아 작가를 초청했다. 이번 강연에서는 심리학과 그림책으로 얻는 위로를 통해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인식, 타인과의 관계, 소통하는 법에 대해 나눴다. 강연 후 추첨을 통해 참가자 10명에게 저자의 사인이 담긴 저서도 증정했다.

이 밖에도 4월 6일(목) 부모 대상 강좌 '독서의 재발견'에서는 《공부머리 독서법》 저자인 최승필 독서교육 전문가가 강연하였고, 문학 창작 이론과 실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정기강좌 '삶과 읽는 것, 그리고 쓰는 것', 성인 대상 독서동아리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책' 등 다양한 강좌를 4월부터 5월까지 운영한다.

4월 28일(금)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청년세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이 열렸다. 해당 강연에서는 한미동맹의 역사와 의미를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화 <미나리>를 매개로 관계의 인문학적 성찰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 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이용과 044-900-9138





## 국내 도서관

# NEWS

01

### 4월 12일은 '도서관의 날', 첫 법정기념일 축하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2일(수), 제1회 '도서관의 날'을 맞이하여 축하하는 행사를 국립중앙도서관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였다. 제1회 '도서관의 날' 기념식에서는 ▲도서관의 날 선포식, ▲도서관 및 관련 분야 유공자 포상, ▲장예·비장예 연주자 혼합 클래식 연주단 축하공연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전국 도서관에서는 4월 12일(수)부터 18일(화)까지 '경계 없이 비추는 문화의 빛, 도서관'을 주제로 제59회 도서관주간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졌다.

03

### '2023년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기관 선정

국립장애인도서관은 4월 5일(수) 「2023년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총 124개 기관이 공모에 지원하였으며, 그중 가양도서관 등 65개 도서관과 서울구화학교 등 5개 특수학교(학급)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기관은 도서관 교육, 독서 및 독후 활동, 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된 장애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시각·청각·발달·지체장애인)을 운영한다. 2023년 선정된 기관 목록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www.nl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

### 한국도서관협회 제31대 회장 곽승진 교수 당선

지난 4월 12일(수) 한국도서관협회 제31대 회장 선거에서 곽승진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당선되었다. 곽승진 당선자는 총 투표권수 3,970표 중 1,630표(64%)를 득표하였다. 이번 선거는 3번째 직선제 선거이다. 곽승진 당선자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도협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공공도서관 지구협의회 역할 등을 정비해 도서관 거버넌스를 재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1대 회장의 임기는 오는 7월 10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다.

04

### 부산교육청, 부산시 모든 학교에 전자도서관 구축



시교육청은 전체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학교도서관 전자책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4월 3일(월) 밝혔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40곳을 제외한 587곳에 학교당 500만 원씩 총 29억 3,5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교직원의 종이책 관리 업무경감, 학교도서관 서가 부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학교당 전자책 보유량을 1,000권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외 도서관

# NEWS

01

### 미국 저작권청, 새로운 인공지능 사업 시작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인공지능(AI) 도구를 이용해 생성된 저작물의 저작권 범위와 AI 교육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 사용 문제를 비롯, AI 관련 저작권법 및 정책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최근 눈에 띄게 발전한 생성형 AI 기술과 개인·기업의 급속한 AI 사용 증가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청은 AI 및 저작권과 관련된 공지, 이벤트 및 자료를 위한 새로운 누리집(copyright.gov/ai)을 개설했다.

03

### 유럽도서관정보문서협회, 유럽의 전자 대출 정책에 대한 안내서 공개

유럽도서관정보문서협회(European Bureau of Library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Association, EBLIDA)는 '정보법 전문가 그룹(Expert Group on Information Law, EGIL)'이 출판한 유럽 전자 대출 정책의 비교에 관한 안내서를 자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본 안내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파트 1은 유럽위원회, 국가 및 지방 당국, 전자책 전문가를 위한 일련의 권고안이 포함돼 있다. 파트 2는 배경 문서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파트 3에는 13개 국가 프로필을 수록하고 있다.



02

### 미국도서관협회, 2022년 기록적인 도서관 서적 및 자료 검열 요구 수치 발표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는 2022년 도서관 내 도서와 자료를 검열하라는 1,269건의 요구 사항을 문서화하여 이를 발표했다. 이는 ALA가 20년 이상 도서관 검열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의 검서 지정을 시도한 것이다. ALA는 4월 24일 미국도서관주간(National Library Week)에 '도서관 보고서'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검열 요구가 많은 10권의 도서 목록을 발표했다. 또한 작년에 '도서 금지에 맞서는 연합'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국립도서관주간에 창립 1주년을 기념했다.

04

### 리투아니아국립도서관, 최초의 활자 인쇄 서적《인큐내불라》온라인 공개

리투아니아국립도서관(Martynas Mažvydas National Library of Lithuania, NLL)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1450년부터 1500년까지 유럽에서 활자로 인쇄된 서적인 《인큐내불라(incunabula)》 75권을 디지털화해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인큐내불라는 현대 인쇄 기술의 발전과 유럽 전역에 지식과 아이디어를 보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번 온라인으로 공개한 《인큐내불라》는 리투아니아국립도서관이 소장 중인 91권 중 75권으로, 누리집(ePaveldas.lt)에서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 내 마음의 문장들

봄기운이 완연한 5월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봄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에 대해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시적 화자의 시선에 따라 전개되는

봄의 다양한 현상들을 느껴보면서

시 한 편, 천천히 따라 쓰고 음미해보세요.

2023년 5월 함께 필사해 볼 시는

김영랑 시인의 <오월>입니다.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졌다

바람은 넘실 천이랑 만이랑

이랑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피꼬리도 엽태 혼자

날아볼 줄 모르나니

암컷이라 쫓길 뿐

수놈이라 쫓을 뿐

황금 빛난 길이 어지럴 뿐

얕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산봉우리야 오늘밤 너 어디로 가버리련

- 김영랑 <오월> 전문 -

## 가정의 달, 나만의 도서관은 어디인가요?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 5월은

바야흐로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달에는

소중한 사람과 도서관 문화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나만의 특별한

도서관을 소개해주세요.

가정의 달, 나만의 도서관은  
( )이다.

QR코드 링크로 접속해  
내가 오늘 읽은 책과 짧은 감상평을  
사진과 함께 인증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바로가기



4월호 당첨자 사연을 소개합니다!

01

도서관의 날, 나만의 도서관은 ( 병원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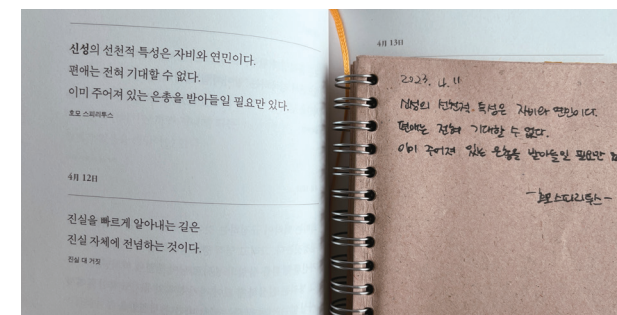


페렴으로 입원한 아이를 간  
호하며 아이가 낮잠을 잘 때  
마다 김초엽 작가의 단편 SF  
소설 모음집인 《방금 떠나온  
세계》를 읽었습니다. 이 책  
을 읽으면 우주로 여행을 떠  
나는 느낌이 듭니다. '우주'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그 안에  
는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있  
어요. 몸은 고단해도 새롭고  
참신한 이야기를 읽으며 잠  
시나마 피곤함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희 님

02

도서관의 날, 나만의 도서관은 ( 명상 )이다.



《데이비드 호킨스의 365일 명상》은 매일 아침 필사하며 읽는 책입니다.  
날짜별로 매일 명상하듯 읽으며 생각을 정리해 보고 있어요. 특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아요. 게  
다가 마음을 울리는 주옥같은 문장도 만날 수 있답니다. 1년을 맘먹고  
아침 필사를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김○정 님